



# 평화 순례자

순례자의 말들이 말해주는  
그녀의 인생과 업적들

이 글들은 평화 순례자의 친구들에 의해  
수집 되었고 책으로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 무엇인가를 찾는 모든 이에게.....

## 평화 순례자의 소개말

파란 조끼를 입고 걷고 있는 백발의 그녀를 우리는 어느 동네 근처나 고속도로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조끼에는 조그마한 주머니 몇 개단이 있고 파란 조끼 앞에는 하얀 글로 “평화 순례자”, 뒤에는 “평화를 위한 25,000 마일의 도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25,000 마일을 걸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사람이 평화로 가는 길을 알게 될 그날까지, 쉴 곳과 음식이 주어지는 한 순례를 계속 하겠다”는 그녀 자신과의 약속 아래 계속해서 걷고 또 걸었다. 그녀는 어느 단계에도 속하지 않고 무일푼으로 횡단을 계속했다. 그녀는 순례를 하며 평화를 위해 기도 했으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며 영감을 불어 넣어 주었다. 순례를 하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나 대학, 방송이나 학교 강단을 통해 그녀의 경험을 이야기 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그녀는 전쟁이 평화의 방법이 아님을 강조하며 무기와 폭탄의 저장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강조했다. 그녀는 지금이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시기이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핵 전쟁과 평화의 시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늘 순례를 통해 무슨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으나 “순례자와 대화하며 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혀있는 몇 천 개의 편지들이 그녀의 순례가 무의미한 순례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위의 내용은 평화 순례자가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지참하고 다녔던 몇 안 되는 인쇄물 중 하나로 광고지에 적혀 있었다.)

# 차례

	시작하는 글.....	vi
1	성장 .....	1
2	영혼의 성장: 내적 평화로 가는 길.....	5
	준비, 6	
	정결, 9	
	단념, 13	
	내적 평화에 도달하기, 15	
3	순례 .....	18
4	나의 순례의 반영.....	35
5	간단한 인생 살기.....	42
6	인생 문제의 해결책.....	47
	걱정하는 습관, 49	
	화내는 습관, 50	
	두려움의 습관, 50	
	신의 보호, 51	
7	영적인 삶 살기.....	54
	기도의 방법, 55	
	단식, 60	
	회복, 62	
	생각의 힘, 63	
	죽음, 64	
	종교, 67	
	사랑의 방식, 68	
	속고하게 하는 생각들.....	71

8	평화로 가는 길.....	75
	평화의 값어치, 83	
9	평화주의자의 증가.....	85
10	아이들과 평화.....	89
11	사회의 변화.....	92
	세계 공동어, 92	
	민주주의와 사회, 93	
	사회 평화활동, 95	
12	순례의 길.....	97

## 부록

I	평화순례자의 걸어온 발자취.....	107
II	평화순례자의 영적 성장 도표.....	109
III	질문과 답들.....	110
IV	시와 기도들과 노래들.....	129
V	뉴스 속의 평화순례자.....	135
VI	평화순례자에게 쓴 편지들.....	140
VII	평화순례자와 함께.....	143

## 시작하는 글

평화 순례자가 미국을 횡단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들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녀는 28 년이라는 순례의 기간 동안 수천만 명에게 깨우침과 영감을 주었다. 평화 순례자와 함께 말하고, 웃고, 걷고, 식사를 하며 들은 순례의 이야기,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며 나누었던 순례자와의 포옹과 악수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1953 년에서 1981 년까지 백발의 평화 순례자는 시와 읊, 동네동네를 횡단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그녀의 메시지는 간단 명료한, “우리가 내적 평화를 찾으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1981 년 비록 평화 순례자는 세상을 뜨지만 뉴 멕시코의 신타페 등지에서 평화 순례자를 기억하고 그녀의 순례의 메시지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그녀의 친구들과 그녀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의 모아서 평화 순례자의 삶과 가르침들을 책과 인쇄물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평화 순례자의 놀라운 인생과 가르침을 그녀의 말을 통해 전하려 한다. 평화 순례자의 말은 그녀의 작은 책자, *Steps Toward Inner Peace* (내적 평화로 가는 길), 그녀의 19 개의 *Peace Pilgrim's Progress* 뉴스 레터, 개인적인 대화 내용들, 강의 내용들을 모아서 만들었다. 또 다른 중요한 자료들은 Swarthmore (스왈프 모어) 대학의 평화 도서관 자료실에 있는 신문 기사들과 인쇄물 등이다. 비록 평화 순례자의 말을 전제로 쓴 글이지만 이 책은 순례자가 직접 쓴 책이 아니다. 사람들이 순례자에게 직접 그녀의 자서전이나 책을 써볼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았으나 순례자는 단지 책 서식에 맞게 쓰지 않아서 자기는 벌써 책을 쓸 그 이상의 글들을 써 왔다고

대답했다. 아마도 책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거 같다. 그녀의 기본 메시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메시지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로 설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책이 좀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순례자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음을 가르쳐 준다. 내적 평화만 찾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적 평화가 얼마나 큰 힘을 발산시켜 주는지 보여준다. 정말 순례자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도 미국을 횡단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였으니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로보트 스티는 인도의 한 저널 *간디 말그*에서 평화 순례자는 항상 자신있게 말한다며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 같다고 표현했다. 평화 순례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닌 그녀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녀의 이름을 “평화 순례자”로 바꾸었고 “평화 순례자”라고 불려지기를 원했다. 순례자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본적, 생일, 이름 등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단지 평화에 관련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그 이상으로는 기억되고 싶지 않다” 고 말했다. 순례자를 잘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녀는 재치 있고, 삶을 즐겁게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미국 동부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난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녀는 어느 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발견하고 오히려 이런 물질주의적인 세상이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느 날 밤 순례자는 숲 속을 걷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녀는 15년 동안 여러 봉사활동을 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왔다. 이런 준비의 기간 동안 그녀는 내적 평화를 찾게 된 것이다. 드디어 1953년 1월 1일 아침 그녀의 순례가 시작되었다. 순례자는 주머니에 돈 한푼 없이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걷기 시작하여 다 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픈 마음을 자아내었다. 그녀는 파란 조끼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주머니에는 미리 빛, 여행용 칫솔, 불펜, 그리고 그녀의 메시지가 적힌 인쇄물이 들어 있었다.

1964년까지 25,000 마일을 걸은 뒤 순례자는 거리 세는 것조차 하지 않기로 마음 먹는다. 그녀에게는 거리를 계산하는 것보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순례자는 쉬지 않고 걸으며 여러 곳에서 연설을 하며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베칼띠,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고 드럭 워나 길거리, 사막, 도시 중심가 등 장소에 연연하지 않고 연설했으며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또 몇 백 개의 지방 방송을 통해 그녀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셀 수도 없을 만큼 여러 지방의 신문에도 그녀의 기사가 실렸었다. 순례자는 또한 대학의 철학과, 정치학과, 사회학과나 고등학교, 지역 단체나 교회 등을 방문하여 연설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순례자에게 더욱 따뜻한 환영과 심도 있는 질문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가 지나가는 도시의 위험성 등을 염려했지만 순례자는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지곤 했다.

순례자가 세상을 뜰 때쯤은 미국을 일곱 번 순례한 때이다. 그녀는 미국의 50개 주를 순례했으며 캐나다의 열 개 주와 멕시코까지 순례하였다. 1979년과

1980년에는 그녀의 인생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그릇의 사람들과 함께 순례하기도 했으며 1984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영적인 투이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녀는 1981년 7월 7일 인디애나주의 낙스 지역에서 더욱 더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한다. 연설장소로 향하는 길에 그녀는 세상을 뜨고 만다. 그녀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순례자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순례자는 1984년 7월 6일 낙스의 WKVI 라디오 방송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에 “나는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을 아는데 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했다. 뉴저지에 있는 우체국으로 순례자에게 보내어진 모든 편지가 도착되었는데 편지에는 모두 얼마나 순례자가 힘이 되었는지, 순례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 같다는 내용의 글들이었다. 이 편지들은 우체국에 모여져서 평화 순례자에게 전해 졌었다. 그녀에게 도착된 편지들을 통해 우리는 그녀의 평화 순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었는지 알 수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평화 순례자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되길 원한다고 전해왔다. 우리는 이 책이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화 순례자를 아직 만나보지 못한 모든 이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길 바란다. 어떤 사람은 “평화의 씨를 이따 뿌려졌다. 이젠 그녀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은 사람이 거두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순례자의 혼과 말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삶에서 사랑과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 우리는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과 함께 평화 순례자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

*바람처럼 지구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지구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다.*

평화 다섯이란 모임의 친구들,

뉴 멕시코, 산타페

1982년 3월 31일

## 제 1 과:

# 성장

나는 작은 마을 한 농장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정말 기억에 남는 좋은 성장기를 보냈다. 시골에서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해야만 했던 나의 어린 시절을 나는 매우 감사히 생각 한다. 내게는 정말 행복했던 추억들이기 때문이다. 나무를 벗삼아 놀며 계곡에서 수영도 할 수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먼저 할 일은 먼저 하자”란 생각을 갖고 항상 일에 순서를 정하여 놓곤 하였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 되는 일부터 해 왔다. 이런 나의 생각은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다.

어렸을 적에는 난 종교가 없었다. 교회라는 곳에는 12살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것도 교회 복도를 청소하는 모습을 살짝 훑쳐 본 것이 전부였다. 처음으로 교회 안까지 들어가 본 것은 내가 16살이었을 때 결혼식에 초대 되어서 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때는 고등학교 졸업반에 있었을 때이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이 항상 내 머리 속에 맴돌고 있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난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나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다.

답은 매우 간단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 외에 하나님 이라는 신을 통해 이루어 진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내 주위의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난 나무를 보며 저 나무를 만든 신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 밤에 별들을 바라보며 저 별들을 만든 누군가가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적인 변화를 보며 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계시는 이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 하셨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 곁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한시도 홀로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난 고등학교를 다니며 일을 하였다. 조그만 가게에서 계산대 일을 맡아서 하였는데 어느 날 거스름 돈이 없어서 “문 닫았음”이라는 뜻말을 내걸고 거스름 돈을 만들러 나갔다 왔다. 가게에 돌아 와서야 내가 한 일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았다. 주인은 가게를 보다 말고 문을 잠그고 나간 이유를 묻기 시작 했고 심지어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내가 도둑질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단지 거스름 돈을 만들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일 이후로 주인은 나를 싫어하게 되었고 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난 남아서 보기 싫은 가게의 마루바닥을 보고 집 정원에서 꽃을 키워와 그곳을 예쁘게 장식하며 꽃으로 가리 놓았다. 그 후로 주인과 나는 다시 가까운 사이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나는 역사 시간에 쓰는 물 (가장 중요한 법칙) 이라는 것에 대해 읽은 적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해 주라”는 내용이었다. 이 글귀는 내 마음속에 그 이후로 자리잡게 되었다. 학교에 다닐 때에도 골든 룰과 비슷한 말들을 많이 들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되고 싶으면 먼저 그 친구에게 친하게 대하라” 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평화로워지고 싶으면 먼저 내 자신이 평화로워져야 한다”는 나의 메시지 이다.

난 이 골든 룰을 그저 학창시절 때 뿐만 아니라 나의 직업, 클럽 활동, 모든 곳에 적용시켜 따르기 시작했다. 학창시절 내 친구가 원하던 직장에 내가 취직을

하였고 이 친구가 원하던 클럽의 임원 직에 내가 임명이 된 적이 있었다. 이렇듯 친구가 원하는 자리에 친구는 가지 못하고 내가 모두 차지 했으니 내가 모두 빼앗은 꼴이 되었고 이 친구는 나를 당연히 싫어하기 시작했다. 친구는 나에게 험한 말을 퍼부었고 우리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 하였다. 나는 이때에도 끝은 끝을 적용시켰다. 나는 이 친구가 원하는 일, 필요로 하는 일을 먼저 나서서 도와주기 시작 하였고 짧게 결론만 말해서 결국 우리는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작은 생각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는지 알 수 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 친구들이 내게 담배와 술을 권했을 때가 있다. 물론 나는 담배를 피우는 것도 술을 마시는 것도 원하지 않았으므로 친구들의 권유를 거절 했고, 내가 거절 하면 할수록 더욱 더 친구들은 나를 압박 해 왔다. 결국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담배 피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날 앞잡아 보고 무시하고 괴롭혔다. 이럴 때마다 나는 조용한 곳에 가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 누구도 내가 선택하는 인생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없다. 내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난 자유를 선택 하는 거야” 하며 내 자신을 위로하곤 했다. 어쨌든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위한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나의 순례를 준비해 왔는지도 모른다.

나는 시간이 지나며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는 돈을 버는 것은 매우 쉽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돈을 벌이 뜻 없이 그 돈을 써 버리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그 당시에만 해도 내가 이렇게 평화 순례자가 될 거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돈과 물질적인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지 않는다는 깨달음은 나를 순례의 길로 인도 하였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는 나도 의문이고 어떻게 보면  
행운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쟁을 보고 자리면서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이  
나를 순례의 길로 인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렸을 적부터 인간은 착해야 하고 남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지만  
막상 전쟁에 나가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와서는 메달을 받고 하는 당시 상황들이  
나를 헛갈리게 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어왔던 나이기에 나는 남들보다도 더 긴 혼동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다.

어렸을 때 나는 착하고 이기적이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나는 또  
성공하고 싶다면 무엇이든지 잡고 빼앗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상반된 가르침들이 나를 어지럽게 했고 결국에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생활들  
속에서 나는 떠나기로 마음 먹게 되었다.

## 제 2 과:

# 영혼의 성장: 내적 평화로 가는 길

나는 정말 간절하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밤새 숲속을 거닐며 생각에 잠기곤 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달라고 기도 드렸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내 마음과 생각들을 모두 꺼내어 놓을 때 나는 큰 내적 평화를 맛볼 수 있었다.

난 내 인생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닌 나누기 위한 삶을 살기로 마음 먹었다. 내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 된 것이다. 인생이 더욱 뜻 깊어지기 시작 하였다. 내가 두통이나 감기도 안 걸리는 좋은 건강을 선물 받았음을 깨달은 이후로 나는 내 인생이 평화를 위해 쓰여져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를 헌신하기 원하는 마음과 자기 인생을 내 놓는 것이랑은 큰 차이가 있었다. 난 나의 모든 것을 내 놓기 위하여 준비하기 시작 하였고 준비 하는 데에만 15 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우리의 낮은 자아는 모든 것을 외적으로 보게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한다. 이런 낮은 자아가 중심이 된다면 우린 모두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된다. 자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커가는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 감정은 자기 중심의 생활이나 하나님 중심의 생활에서도 모두 쓰일 수는 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는 몸, 마음, 감정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혼란과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생활에서 만이 이 세가지가 모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희생과 절제가 요구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절제적인 행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만 한다면 저절로 어렵지 않게 변화되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사람을 복잡하고 괴롭게 만들지만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편하고 안정됨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때에 우린 더 커다란 힘으로부터 보호 받게 되는 것이다.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 할 때 나는 단계별로 구분 지어 설명한다. 그렇다고 영적인 성장에 단계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성장 과정이 음식처럼 누구에게나 모두 똑같이 경험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순서나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별히 더 쉽게 느껴지는 단계를 경험 할 수도 있다. 다만 내가 설명하는 이 단계들은 인생에서 조화를 찾고자 할 때 경험하게 될 그런 단계들임은 확실 하다.

## 준비

내게 필요했던 몇 가지 준비 과정을 말하고 싶다. 첫 번째는 인생에 대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절만 떠돌며 헤메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중 하나가 되어선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을 뜻있는 자세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만약 큰 그림, 우리의 미래를 모두 알고 있다면 인생을 사는 목적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 했을 때에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함께 우리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기로 하자.

두 번째 준비는 지구상의 모든 것을 조정하는 법칙들과 우리의 삶이 조화로워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지구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섭리와 법칙들 또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법칙들을 무시 했을 때 우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된다. 이런 법칙 중의 하나가 바로 선이 악을 이긴다는 법칙이다. 이것은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하고도 중요한 법칙을 무시하고 악으로 선을 이기려 하고 있다. 인간의 악의 끝은 고통뿐이고 오직 선만이 좋은 결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우리가 명심하고 따라야 하는 법칙이다.

세 번째 준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 해 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맞는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규율을 깨라고 가르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조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 곁으로 안내 해주신다.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식으로써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왔다. 나는 조그마한 일들도 그냥 넘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마음 속에 그분을 모시고 생활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편안한 언행과 밝은 미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나의 품성을 바꾸어 보려고 혼자서 노력을 많이 했었지만 그 일은 내게 너무나 어려웠고 매번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품성과 언행, 표정의 변화들은 내 힘으로,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 지는 것이었다. 내게 너무나 힘들고 크게 느껴지는 일들뿐만

아니라, 나의 올바른 행동과 취지를 위해서도 나는 기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항상 주님의 방법으로 들어 주셨다. 나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쁨에 대해 배웠다. 사람들을 돕는 일을 통해서 내게 더 큰 은혜가 내림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방법으로 사람들 돕는 일을 시작하였다. 정원 일 돕기, 책 읽어 주기, 양로원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돕는 일을 했다. 방황하는 청소년이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을 돕기도 했다. 그저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한 이런 봉사 활동을 통해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 이었나를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을 물질적인 돈으로 환산하였다. 그러나 행복과 평화는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다. 만약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다.

네 번째 단계는 간단한 인생 만들기 이다. 이 단계는 속과 겉,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인생에서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단계는 나에게서 쉬운 단계였다. 내가 내 인생을 남을 돕는 일에 바치기 시작 하면서 내가 필요한 그 이상은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이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생을 간단히 하고 나면 큰 자유가 따른다. 이 자유를 느끼며 난 안과 밖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아무리 인생을 간단히 하려는 마음이 있다 해도, 그 동안 잡고 있었던 끈을 놓아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욕심이 우리를 더욱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이다. 마음먹은 대로 맨 처음 끈만 잘 놓으면 몇 배로 더 나은 삶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이런 조화는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의 미래는 사람들의 내면의 영에서부터 결정된다. 우리가 이 내면과 외면의 영을 잘 조화시킨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 정결

난 내 자신에게서 정결 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우선은 나의 육체의 정결이었다. 나는 나의 습관들을 개선 해야 했다. 나는 내 몸을 아끼고 돌보지 않았으며 아무 음식이든 상관하지 않고 먹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치기로 마음먹고 5년이 지나서야 나의 몸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렇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금은 대부분 과일과 채소, 곡류와 견과류를 종종 우유나 치즈를 곁하여 섭취한다. 카페인에 중독되어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제일 먼저 커피를 마셔야 했던 때도 있었던 나였다. 그러나 이제는 커피는 입에 대지도 않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난 커피보다 강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살생하지 않겠다는 내 생각에 따라 닭고기와 생선도 먹지 않기 시작했다. 나의 몸이 내 영혼에게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더욱 더 몸을 돌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나님의 자식이 진실히 되고 싶었던 나에게 꼭 채식을 하여 주님의 성전인 나의 몸을 신성하고 소중하게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진실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밀가루와 흰 설탕이 몸에 나쁘다는 것을 들었을 때 당장 먹는 것을 멈추었다. 난 나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장 실행에 옮기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수돗물도 나쁘다 하여 정수원 물이나 끓인 물을 먹었다. 나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잘 안다. 나도 먹는 것을 즐긴다. 하지만 난 살기 위해 먹는다. 냇냇의 사람들처럼 먹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언제 그만 먹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나는 음식의 노예가 아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서도 계속 배가 고프다고 느낄 수 있다. 음식의 양과는 상관없이 말이다. 너무 음식을 많이 섭취해도 영양 포화로 병이 생길 수 있다. 좋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 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음식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그저 생활에 필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음식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

나는 나의 먹는 것과 자는 습관을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한다.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자연 안에서 활동하려고 노력하며 쉬는 것도 중요하므로 잠도 충분히 잔다. 시간이 허락 될 때면 여덟 시간씩도 자둔다. 운동도 중요하다. 나는 걷는 것과 팔을 돌리는 것으로 꾸준히 운동을 한다. 사람들은 몸을 정결케 한다는 이 단계를 가장 먼저 시작 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단계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 한다. 나쁜 습관들을 없애는 이 어려운 일을 하려 할 때 우리를 정신적으로 지탱 해 주는 주관이 아직 성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생각의 정결함이다. 만약 사람들이 생각의 힘을 잘 안다면 아마도 비관적인 생각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좋은 생각은 강한 힘을 우리에게 발산시켜 주며 나쁘고 악한 생각은 우리의 몸 또한 약하게 만든다. 나는 불량한 음식은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량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관이 없을 때 불량한 음식도 쉽게 먹게 되는 것이다. 불량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불량한 음식, 잘못된 식생활을 바꾸는 일보다 더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비관적인 생각으로 손해를 입은 한 남자 이야기를 해 주겠다. 내가 그를 처음 알게 된 해에 그의 나이 65 세였다. 그는 병에 걸려 있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곧 그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게 무언지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걸으로는 나름대로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 부인과 자식들과도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언가 어두운 면이 있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형만 공부를 시키고

그는 공부를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아버지가 돌아 가신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많은 시간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를 통해 아버지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당시 집안 여건과 사정들을 생각할수 있게 도와 주었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모두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의 나쁜 감정들도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이런 나쁜 감정들이 사라지자 그의 병도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곧 완쾌되었다.

만약 다른 누구에게 조금의 불만이라도 갖고 있다면 빨리 그 감정을 정리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다치게 한다. 바른 생각을 하며 바른 말만 하고 사는 것도 충분하지 않은 인생이다. 인생을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먼저 바른 생각,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

나의 인생은 이렇듯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준비 단계에서는 아직 내 자신을 “완전한 나”라 부를 수 없다. 나도 나에게 대해서 배우는 단계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 내가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에는 거울을 보며 내 자신에게 내가 남보다 더 잘 난 것이 없다는 것을 상기 시켰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잘못을 개선하고 변화시켜야 하겠다. 이렇게 할 때에 원하는 위치에 설수 있게 된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개선할 때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 조금씩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아갈 때 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세 번째는 희망의 정결함이다. 당신은 무엇을 희망하고 있나? 좋은 옷을 입으며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연의 법칙과 규율 속에서 화합을 이루고 살길 원하므로 희망 또한 우리가 지향하는 곳을 향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의 중심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희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삶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 이 희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또 다른 정결함은 동기의 정결함이다. 당신은 무슨 동기로 일을 하는가? 만약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라면 그만 두어라. 물론 여러 가지 동기로 인해 일을 시작할 수는 있다. 항상 좋고 나쁜 동기는 섞이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한 사업가가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자기 가족을 위한 동기와 자기 지역을 위한 동기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건 좋은 사업이 아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 인생에는 영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느냐고 묻는다. 나는 그 이유는 평화를 향한 동기가 아닌 자기 이익만을 위한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준다. 만약 마음 속에서 내적인 평화를 찾는다면 평화는 외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나타내어질 것이다. 남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도 외적으로 나타나는 평화의 한 부분이다. 진정한 평화는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으로 나타내어 지며, 어떠한 목적을 위한 계산적인 동기가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내게 한 설계자 친구가 있었다. 그는 일도 잘 하였으나 일을 하는 동기가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였다. 그는 결국 병이 나면서까지 일을 했다. 자기가 좋아서 시작한 설계일 인데도 그는 일하는데 흥이 나지 않았고 지쳐있었다. 그래서 난 그에게 봉사의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며 아주 조금씩의 봉사를 시작해보면

어떻게냐고 권유하였다. 몇 년이 지난 뒤 내가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그를 알아보지도 못할 뻔 했다. 그는 나의 권유대로 조금씩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 했고 다시는 자기 중심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여전히 설계 일을 하고 있었으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설계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고 사람들을 위한 설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사람들이 멀리서도 남편에게 일을 부탁하러 찾아와 남편의 사업이 오히려 더 번창했다고 말했다. 나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아닌 그냥 동기를 바꾸는 것으로 새로운 인생을 찾는 예를 더 많이 봤다.

## 단념

영적 성장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단념이다. 한번의 단념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욕망의 단념이다. 만약 좋지 않은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뒤집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경험과 노력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끌어 올려 준다. 만약 실수로라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면 그 에너지를 칭찬하는 데에 써라. 그렇게 하면 내적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단념은 떨어져 있다는 느낌, 나와는 상관 없다는 생각의 단념이다. 우리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을 종종 잊은 채 모든지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외면할 때가 많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처럼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주위의 모든 것과 조화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조화가 바로 올바른 삶의 방식이다.



세 번째 단념은 속해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념이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 사람, 장소에 묶여서 산다면 사실상 자유는 없는 것이다. 위의 것들을 단지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갖는다면 문제가 다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따르고 물질적인 것이 목표가 되어 끌려 다닌다면 자유로워 질 수 없다. 물질적인 것만 소유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사람도 소유하려 한다. 아무리 결혼을 한 사이여도 남편이 부인을 소유할 수 없고 부인 또한 남편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모들도 자식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 자식, 남편, 혹은 부인을 소유하려 하며 그들을 위해 인생을 살아주려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부조화의 삶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자유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나쁜 기분을 없애야 한다. 가장 착하다는 사람도 갖고 있는 나쁜 감정이 바로 걱정과 근심이다. 근심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언가에 거는 불필요한 감정이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다치게 하거나 상처 주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깨달았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잘못 말했거나 잘못 행동했을 때 난 정신 적으로 상처를 입는다. 내 자신의 상처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미움과 화로 내 자신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우리가 우리의 정신적인 면까지 조정할 수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에는 많은 방법이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우리 각자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법칙에 수긍하고 조화를 따른다면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세계가 평화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평화로 가는 길의 열쇠는 우리 개개인이 쥐고 있는 셈이다.

나는 나의 영혼의 성장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갖고 계신 희망이 무엇이였을까 생각해 보았다. 영적인 성장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나 한번 시도해 볼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시간이 걸릴 것이다. 큰 결과를 단시간에 맞볼 수는 없다. 어려운 단계이면서도 그 뒤에는 커다란 대가가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실 때 우리는 평생 맛보지 못한 그런 기쁨과 축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으로 비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버린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고,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시간을 뜻 없이 보내고 하는 “나”를 버린 것이다. 나에게서 잃은 것 보다 건강함과 행복 등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 나는 더욱 소중한 것을 얻었다.

#### 내적 평화에 도달하기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많은 산과 인덕이 있다. 내가 어느 날 아침 걷고 있는데 전에는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한 단계 높아진 발진을 느낄 수 있었다. 잠시 동안 시간도 공간도 느낄 수 없었고 감지기 환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난 마치 지구에 존재하지 않고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 주위에는 동물, 꽃, 나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빛만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나의 경험은 내가 무엇을 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창조물 안에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경험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비로소 나는 모든 만물은 하나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이 일이 있는 이후로 난 단 한번도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내가 뉴 잉글랜드의 어느 높은 산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새벽에 일어나 산 꼭대기를 봤을 때 알 수 없는 좋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서야 내가 찾던 것을 드디어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된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었다. 산에 계속 있는지 다시 산에서 내려 오든지 결정을 해야 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 복잡한 혼란의 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 나는 이때 순례의 참 맛을 맛볼 수 있었다. 나는 내가 경험한 내적 평화를 순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더욱더 강한 내적 평화를 향한 마음의 충동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미국 지도를 보게 되었을 때 미국이 마치 누군가에 의해 지그재그로 갈라 놓아진 것처럼 내 눈에 비추어 졌다. 이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바로 이 순간 난 미국을 횡단하며 순례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이것이 1953년에 시작한 나의 순례의 비전이었던 것이다. 나는 새로운 세상의 문앞에 서 있었고 내 인생은 뜻있는 목적으로 축복 받았다.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며 발전하는 인생을 맛볼 수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항상 내가 사랑과 기쁨, 좋은 것들에 쌓여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마치 모든 것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게 될 거리는 두려움을 주지만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우리 마음속 안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내가 배운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한가지 이다. 우리의 삶은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닌 나누는 삶이 되어야겠다. 나는 주는 것 없이 받을 수 없고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건강, 행복, 내적 평안도 마찬가지이다.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인생에서 조화를 이루면 그것이 바로 완전 인생이다.

우리 각자가 인생의 조종자이다. 영적 성장에 이르게 되면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각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단계의 성장은 자유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 준다. 이렇게 영적으로 트인 눈으로 비로서 창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와 그의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52년에 나는 내가 비로소 순례를 할 단계가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순례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였던 거 같다. 한국전쟁과 맥아더 시대로 어수선했던 때이다. 또 사람들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유죄라 믿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는 무섭고 두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 많은 순례자들이 활동 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나도 내게 남은 마지막 돈으로 나의 메시지를 적을 종지와 연필을 샀다. 내가 디자인 한 조끼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는 한 여자분께서 재봉해 주시고 어느 싸인 만드시는 분께서 글을 새겨 주셔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 조끼를 처음 받아 입어 보았을 때 난 “아! 이것이구나!”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감사히 조끼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파란 조끼와의 나의 순례가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이다.

### 제 3 과:

## 순례

순례자는 목적을 갖고 그 뜻을 전하기 위해 떠돌아 다니는 사람을 말한다. 영어에서 순례 (pilgrimage)는 어느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물, 목적을 표현하기도 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순례는 평화, 그리고 평화를 위한 순례이다. 그래서 내가 “평화 순례자” 인 것이다.

나의 순례는 국가간의 평화, 단체 안에서의 평화, 환경에서의 평화, 개개인의 평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내적 평화 (평화가 시작하기 때문에 중요함) 등 광범위한 평화를 모두 포함한다. 우리 안에서 평화를 찾고, 각자가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가면 갈수록 이 세상도 더욱 더 평화로워 질 것이다. 중세 시대에 순례자들이 돈이나 음식, 여분의 옷도 없이 순례의 길을 떠났던 것처럼 나도 돈 한푼 없이 순례를 하고 있다. 나는 순례를 위해서 어떠한 돈도 받지 않는다. 어느 단체에 속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후원도 받지 않는다. 그 어떠한 구속의 끈도 없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처럼 순례를 하기 위해서 이다.

나는 순례를 하는 동안 음식을 위해, 열 곳을 위해 구걸하지 않는다. 내게 음식이 주어질 때까지, 잠잘 곳이 생길 때까지 걷고 또 걷는다. 내가 묻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들이 적당한 때에 모두 주어진다. 아직도 남은 위해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 우리 인간들은 모두 선함을 갖고 있다. 사람에 따라 때로는 가슴속 깊이 파묻혀 있는 선한 마음일 지라도 모두에게나 선함은 있는 것이다. 당신이 이 선한 마음을 인생에서 꺼내어

활용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 중심의 상태, 신을 섬기고자 하는 본성 (Divine Nature)이라 부른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에 이런 선한 마음이 가득 하다고 말씀하셨다.

순례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신이 믿는 올바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걷는다. 나도 이런 이유에서 “평화 순례자” “평화를 위한 25,000 마일의 도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걷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강제성이나 억압 감을 주지 않고 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게 와서 관심을 보일 때 나의 메시지는 더욱 강하게 전달 될 것이다. 내게 관심을 갖고 말을 걸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에 대하여 관심이 있던지 인생에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유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 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모이기 시작하던 나는 나의 평화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간추려서 사람들에게 알린다.

“악은 선으로, 거짓은 진실로, 증오는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메시지를 간단히, 그저 종교적인, 현실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나의 메시지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규율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이 평화의 규율을 무시하고 깨 버리면 엄청난 제앙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규율을 지켜 나갈 때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 풍부한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실천에 옮기는 것만 남았을 뿐이다.

나의 순례는 바로 평화로 가는 길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함이다. 나는 전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더 큰 내확살이 일어나기 전에 하루 빨리 평화의 길을

찾기를 기도한다. 내 순례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에게 내적 평화를 찾게 해 주는 것이다. 내적 평화를 찾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나도 찾았으니 말이다.

1953년 1월 1일, 나의 순례는 시작 되었다. 이날은 나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 생일과도 같은 날이다. 내가 순례를 시작한 곳은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의 장미 퍼레이드 대회에서였다. 대회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의 순례는 시작 되었다. 한 반쯤 왔을 때 한 경찰관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길 옆으로 더 붙어서 가라고 경고를 주려는 것으로 생각 했는데 대신 내게 “당신과 같은 사람이 우린 더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로스엔젤레스에서 처음으로 순례를 시작할 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기자들과 뉴스 보도진들이 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찾아왔다. 몇 시간 동안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며 신문에 실을 사진을 찍는 등 텔레비전 방송 촬영, 라디오 녹화를 하느라 분주 했다. 그리고 곧 나의 사진과 순례에 관한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졌다. 나의 소식은 로스엔젤레스에서 샌디에고 까지 신문을 통해 전해졌다. 샌디에고에서 난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와 내 개의 라디오 방송을 했다. 샌디에고 교회 대 총회에서는 나의 메시지와 나의 세가지 탄원서를 인정하고 각 교회에 배포해 주었다. 걷지 않을 때면 난 내 “세 가지의 평화 탄원서”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고, 서명을 받으러 다니기에 바빴다.

나의 “평화의 탄원서”는 세가지 이다. 첫 번째 탄원서는 한국에 평화를 주자는 내용으로 탄원서에는 “한국에서 살인과 학살을 중단하자! 전쟁과 죽음 대신 선으로 악을, 진실로 거짓을, 사랑으로 증오를 이기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적혀있다. 두 번째 탄원서는 대통령과 국회 의원들께 평화부서

설립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선으로 악을, 진실로 거짓을, 사랑으로 증오를 이기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평화 부를 설립하여 국내·외의 모든 충돌을 평화 부에서 관리하기를 원한다” 는 내용이다. 세 번째 탄원서는 유엔 (United Nations)과 세계 지도자 들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평화의 길을 찾고자 한다면 선으로 악을, 진실로 거짓을, 사랑으로 증오를 이겨야 한다. 우리는 무장 해제를 통해 공포와 두려움, 증오에서 자유로워 지고 식량이 부족하여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전쟁으로 폐한 도시들의 수리작업을 돕고 지원하여 넉넉한 인생을 공유해야 한다. 이것만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적혀있다.

나는 이런 나의 탄원서들을 순례하는 곳에서 마다 평화를 위한 모임들, 교회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렸으며 그들의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나의 첫 번째 미주 횡단이 끝났을 때 이 탄원서들을 유엔과 백악관 관리들에게 제출하였다. 나는 “한국에서의 전쟁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나의 첫 번째 탄원서가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받아들여져서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했다.

샌디에고를 지나던 첫 해에 나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 할 기회를 접하게 되었다.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께서로부터 그 선생님 반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난 선생님께 한번도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말씀 드렸다. 선생님은 아무 걱정 말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 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리하여 난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여태까지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조금 긴장이 되었다.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학교에 들이 썼을 때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나를 맞아 주셨다. 원래는 한 반에서만 이야기 할 계획이었으나 학생들이 모두 창 밖을 내다보며 평화 순례자를 기다리고 있다며 전교생을 위해 말해 줄 수 없느냐고 교장 선생님께서 정중히 물으셨다. 나는 얼른 승낙을 하였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강단에 학생들을 모두 모아 주셨다. 이렇게 해서 오전에는 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나의 순례, 순례의 목적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같은 날 어느 단체에 속한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와 오늘 자신이 속해있는 클럽에서 연설을 하기로 한 사람이 도통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며 내게 대신 연설을 부탁 해 왔다. 그리하여 점심때에는 한 단체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에는 어느 교회의 선교사 부부가 교회에 함께 가서 저녁도 먹으며 좋은 말씀 좀 해 주시면 안되겠냐고 부탁을 해 그렇게 하였다. 모든 순서가 끝난 뒤 그 부부는 침실까지 내어 주며 나에게 열 곳을 제공해 주었다.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은 사전의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이루어진 일들이었다.

지금은 대학교, 고등학교, 교회에서 바쁘게, 그러나 행복하게 평화에 대한, 평화를 위한 연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쁜 연설 스케줄 가운데서도 내가 순례를 계속하며 나에게 오는 우편물들 까지도 모두 회답하며 관리할 수 있었던 때에는 “먼저 할 일은 먼저!”라는 나의 생활 신조가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나는 연설이나 강연을 다니며 단 한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절대로 동전 한 닢 받지 않는다. 우편을 통해 나에게 보내지는 돈은 나의 메시지 등을 찍어내고 배포하는데 쓰인다. 나의 메시지는 모두 무료로 배포되기 때문이다. 값진 것, 영적인 것들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원한다면 무료로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영적인 것들을 팔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다치게 될 것이다. 영적인 것을 상업적으로 악용 한다면 그나마 갖고 있었던 것들까지 모두 잃게 될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순례를 시작했을 때에는 순례가 고난과 고통을 불러 일으킬 거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적게 갖고 있으니 나는 내가 필요한 그 이상은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순례를 계속해 왔고 정말 내가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만큼 갖는 생활을 통해 고행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역경도 이겨 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든 해 낼 것이라는,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마음먹은 후 나는 내 자신이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고난과 고통 대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에서 너무나 큰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나에게 역경대신 축복과 은총이 내려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연속되는 시험과 같다. 나도 순례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나중에는 모두 좋은 인생의 경험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마다 화를 내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인생의 경험들을 가질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만약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인생의 시험의 한 예로 캘리포니아 사막 한 가운데서 늦은 밤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말하겠다. 다니는 차량 한대 없고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지역이었다. 그런 곳에서 나는 길가에 주차되어있는 차 한대를 발견하였다.  
그 차 안에 있던 한 남자가 내게 말을 걸어 왔다.

“이리로 오세요. 여기에서 몸 좀 녹이고 가요.”

나는 괜찮다며 차를 타고 갈수 없다고 사양했다. 그 남자는,

“지금 어디 가려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주차 해 놓은 거예요”

하며 내게 차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밤공기도 차고 눈을 붙일 곳도 마땅치 않고 해서 난 그 차에 올랐다. 그 남자는  
몸집이 크고 힘도 좀 쓸 줄 알게 생긴 고생도 좀 해본 사람처럼 보였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한참 동안 나눈 뒤 그 남자가 말했다.

“자 이제 그만 잘까요?”

“오! 그럼요. 자야지요” 나는 말했다.

그리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잠이 들었다. 잠깐 눈을 붙이고 잠에서 깨어  
보니 그 남자는 무엇인가에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였다.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 남자가 나를 차 안으로 불렀을 때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하였다. 그 남자는, “당신이 나를 정말 믿고 있는 모습으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을 때 나는 당신을 건드릴 수가 없었소” 라고 말하는 것이였다. 나는 쉼  
곳을 제공해 주어서 고마웠다는 말을 남기고 또다시 걷기 시작했다. 내가 뒤를  
돌아 그 남자를 봤을 때 그 남자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남자가  
그날 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경험을 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분명 그는 그 안의 또  
다른 자신을 발견했을 것이다.

사랑과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안전하게 걸을 수 없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선함을 발견하게 될 때 (모든 사람에게 선함은 있음으로) 그  
사람은 전과 같은 악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당장 하루 아침에 바뀔 수는 없더라도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나쁜 행동들도 자신을 발견하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서서히 그런 나쁜 일들이 하기 싫게 느껴 질 것이다. 선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사람들간에, 단체들간에, 국가들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한번 경험 해 보길 바란다. 나에게 차 안에서 쉴 공간을 제공해 준 그 남자도 자신의 선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한번은 나와 함께 걷기 위해 동행하던 한 청년에게 맞은 적이 있다. 그 청년은 등산하기를 원하였으나 혼자 등산을 갔다가 다리라도 다치면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며 등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아무도 이 청년과 등산을 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그렇게도 오르고 싶은 산을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미식 축구선수처럼 몸집이 큰 이 청년은 그의 엄마를 너무 심하게 때려 엄마가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로 청년은 폭력적인 아이로 알려졌고 모두들 이 청년을 무서워하게 되었다. 나는 청년에게 함께 등산을 가자고 물어봤고 그리하여 청년과 함께 등산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정상까지 올랐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산꼭대기에 오르자마자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번개가 그 청년 바로 옆에 떨어졌고 놀란 청년은 내게 달려와 나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그 상황에 난 도망갈 수도 있었으나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서서 모두 맞아 주었다. 나는 그 청년에게 동정이 갔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괴로우면 아무 힘없고 나이 많은 여자를 때리겠는가. 나는 그가 나를 때리는 동안에도 그의 화와 증오를 사랑으로 덮어 주었다. 그러자 곧 청년은 때리는 것을 그만 두었다. 청년은 내게 “왜 절 때리지 않아요? 제 엄마는 항상 절 때렸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잠시 동안이었지만 청년은 날 때리는 동안 새로운 자신의 모습, 그의

선한 마음을 만난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내 몸에든 몇 몇 개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무튼 간추려서 결론만 말하자면 그 청년은 다시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게 되었다.

한번은 여덟 살짜리 여자아이를 때리는 남자가 있는데 이 아이를 좀 지켜줄 수 있겠냐며 여자아이의 가족이 내게 도움을 청해 왔다. 나는 이 여자아이가 살고 있는 목장으로 갔고 때마침 식구들이 시내에 일을 보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중이었다. 이 여자아이는 첫눈에도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구들이 모두 가는데도 이 여자아이는 함께 가지 않고 집에 있겠다고 때를 썼다. 나는 “내가 아이를 보고 있겠다”고 하고 식구들을 보냈다. 얼마나 지났을까 꽤 시간이 지나서였다. 나는 창가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차 한대가 집 앞에 서는 것이었다. 한 남자가 그 차에서 내렸다. 그 남자를 보자마자 여자아이는 도망가기 시작했고 남자는 아이를 쫓아 헛간으로 달려갔다. 나는 ‘아이남자구나!’ 싶어 재빨리 아이와 남자가 들어간 그 헛간으로 갔다. 헛간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이 벽 코너에 몰려 겁에 잔뜩 질린 표정으로 떨고 있었고 그 남자는 떨고 있는 아이에게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다.

생각의 힘을 잘 알 것이다. 생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만약 무엇에든지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때부터는 그 생각이 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서 공포와 두려움을 볼 수 있었으므로 난 이 아이가 얼마나 큰 곤경에 빠져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참고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항상 좋은 일만 생각하므로 좋은 일만 생긴다.

아무튼 나는 곧장 그 여자아이와 남자 사이로 달려가 몸을 가로막고 섰다. 그냥 그렇게 서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 이해할 수

있다는 등정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내 쪽으로 서서히 다가오더니 멈춰 섰다. 그 남자는 나를 쳐다보더니 뒤돌아 걸어 나가는 것이었다. 그 남자와 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튼 여자 아이는 무사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을까? 만약 내가 사랑의 법칙을 잊어버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갚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아마 난 심하게 부상을 당했을 지도, 아니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 여자아이도 함께 말이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알아보아서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 안의 선한 마음에 불을 붙여 준다.

내가 순례를 처음 시작하였을 때에는 걷는 것에 두 가지 목적을 두었다. 하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에서였고 또 하나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위한 훈련의 목적이었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은 지금까지 변함 없다. 그러나 두 번째 목적인 기도 훈련의 목적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쉬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깨닫게 된 것이다.

순례를 하며 아리조나주를 지날 때였다. 한번은 인근 우체국에서 편지를 붙이고 있는데 한 경찰관이 나를 보더니 방랑자라며 체포하여 경찰차에 실려 구치소로 옮겨진 적이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방랑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구치소에 감금한다. 믿음으로 걷다 보면 이렇게 방랑자라는 이유로 구치소에 갈 일도 생기는 법이다. 사실 이렇게 돈 한푼 없이 방랑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몇 번 들어간 적이 있었으나 곧 다시 풀려 나오곤 했었다.

경찰관은 한 방에서 네 명이 함께 지내는 제법 큰 방에 나를 가두고는 사라져버렸다. 구치소 방 안에 나보다 먼저 와 있던 여자들을 보니 ‘그래, 평화

순례자야. 네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내 놓았지. 자 이것도 하나님께 영장을 돌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 다가가는데 그때 어느 여자가 말했다, "웃기네요. 여기 들어오면서 웃으면서 들어오는 사람은 당신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두들 목을 하거나 울면서 들어오거든요." 나는 만약에 집에서 하루 쉬게 되었다면 그 하루를 뭔가 유익하게 보내지 않겠냐며 물어봤다. 여자들은 모두 내게 관심을 보이며 가까이 앉으며 당연히 그렇다면서 무엇을 할거냐고 물어왔다. 우리는 곧 영적으로 안락함을 주는 노래를 함께 불렀으며 요가와 같은 영적으로 편안해 지는 운동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내적으로 평화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나의 말에 큰 관심을 보였고 많은 질문을 하기도 했다. 우리는 정말 유익하고 아름다운 날을 함께 보냈다.

하루가 거의 다 갔을 무렵 한 여자가 다른 방에서 우리 방으로 옮겨져 들어왔다. 우리 방에 먼저 있던 여자들은 새로 들어온 여자가 아주 나쁜 여자라며 상대조차 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나쁘고 험련없는 사람이어도 선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을 잘 알므로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다. 대화를 통해 이 여자에게 자식이 있고 혼자 돈을 벌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혼자 돈은 벌어야 하고 직장에서는 항상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 저질로 사람들을 신경질 적으로 대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에는 이렇듯 이유가 있는 법이다.

나는 방안에 있던 모든 여자들에게 이제부터는 서로의 좋은 점만 떠올려보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는 이 방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이 여자의 좋은 점만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우리 모두는 정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법정에 가기 위해 구치소방에서 나왔다. 방 친구들과 간단히 작별인사를 나누고 나를 데리러 온 경찰관과 법정으로 이동하였다. 그 경찰관은 내게 수감도 채우지 않았고 날 잡고 가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에는 커다란 총이 있었다. 나는 그 경찰관에게 내가 만약 도망치면 그 총으로 날 쏠 것이라고 물었다. 경찰관은 웃으며 내게 “물론 아니지요. 나는 내가 잡을 수 있을 땐 절대로 총을 쓰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다.

그날 아침 법정에서 나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날 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써 보낸 편지가 내가 무죄판결을 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 편지는 공무원 편지지에 쓰여진 것으로 아리조나 주지사 하워드 파일의 서명이 있는 편지였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은 평화 순례자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세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다니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아리조나주를 지나는 순례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그분에게 앞으로의 순례가 안전하고 순탄하시길 기원합니다.

법정에서 나오는데 어느 경찰관이 내게 하룻밤을 구치소에서 지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기 같다고 말하였다. 나는 그 경찰관에게 “나의 몸은 철장 안에 가둘 수 있지만 나의 영혼은 가둘 수 없지요. 나는 한번도 철장 안에 있으면서 구치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철장 안에 가두지만 않는다면 구치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경찰관은 내가 붙잡혀온 그 자리에 나를 다시 데려다 주었다. 참 좋은 경험이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행동의 결과이며 이유가 있으므로 목적이 생기는 것이다. 어떤 경험은 삶의 윤활로가 되어주기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해, 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생기기도 한다.



한번은 순례 중에 폭풍을 만난 적이 있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으며 흙 모래며 물건들이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심하게 내동댕이쳐졌다. 이런 폭풍 사이를 앞이 보이지 않으니 도로 가장자리를 감각으로 느끼가며 길을 찾아 걸었다. 그때 계복을 입은 한 경찰이 내 옆으로 차를 세우더니 “빨리 차에 타세요. 이런 무서운 날씨에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며 내게 소리쳤다. 나는 걸어서 순례를 하고 있는 중이라 차에 탈수 없고 내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경찰관에게 말하고 나니 갑자기 거센 바람이 멈추기 시작하였고 곧 비도 그쳐 나는 계속해서 순례를 할 수 있었다. 나는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일들에 부딪치며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부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내게는 소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인생에서 영적으로 축복을 받을 기회, 교훈을 얻을 기회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런 인생에서의 시험들도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이런 시련들을 이겨 나가면서 정말 많은 소중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으며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나의 인생에서의 모든 시험들이 나를 더 나아지게 발전시켜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게는 앞날을 미리 내다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한번은 어떤 남자가 내게 다가와 “저는 순례자에 대한 글과 평화로워지는 방법을 읽으며 순례자는 굉장히 엄숙한 사람일거라 생각했었는데 저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기쁨에 넘치고 행복해 보이시네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변했다. 만약

당신에게서 친절과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한가지 확실한 것은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거울과도 같다. 거울 앞에 서서 미소를 지으면 미소를 받는다. 이렇듯이 실생활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미소를 지으면 그 사람들도 내게 친절과 미소로 대해 줄 것이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면 그 사람들도 나를 사랑으로 대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면 난 나에게서 문제점을 찾는다. 나의 행동이나 언행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혀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남을 해칠 수 있는 힘을 먼저 제거해야만 한다. 우리의 작은 혀로 다른 사람에게서는 치유할 수도 없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꼭 말로 표현하는 사랑만이 사랑은 아니다. 내가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경험을 이야기 해 보겠다. 몸이 너무나 불편하여서 혼자서는 이동조차 할 수 없는 여자 한분을 만났다. 이 여자분은 몇 주 동안 언니 집에 가서 쉬기를 원했지만 혼자 운전을 하고 언니 집까지 갈 수가 없다며 내게 언니 집까지 태워다 달라며 도움을 청해왔다. 그 당시에 내게 운전면허가 있었으므로 그러겠다고 말하고 내가 운전을 하여 그 여자분을 모시고 언니 집으로 갔다. 거의 다 도착하여서 집 앞에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자분이 내게 며칠만 더 함께 있어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 하였다. 그분 언니는 매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언니와 단둘이 있는 것이 좀 걱정이 된다고 했다. 나는 다행히 며칠간 여유가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 여자분은 언니가 나를 받아들일지 한편으로는 걱정 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분 언니 집에 도착하여 보니 정말 여자분의 말이 맞았다. 그 언니는 나를 한번 쳐다보고 내 조끼에 써있는 글을 보고는 나에게 나가라고 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늦은 시간 이어서 밖이 어두웠다. 여자분의 언니는 “오늘

저녁은 그냥 여기 침대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동생을 이 층 어느 방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한 상황이었다. 나는 그 여자분을 이런 상황에 그냥 두고 떠날 수가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언니와 대화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주의를 살펴 보았다. 부엌을 보니 싱크대에 설거지 해야 할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래서 그 그릇들을 모두 닦았다. 그리고 부엌을 깨끗하게 청소한 뒤 눈을 붙였다. 다음날 아침 그 언니는 내게 다가와 조금 더 머무르다 가라고 권했다. 그 언니는 “내가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무슨 실언을 한 줄 모르겠다”며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그 집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렇듯이 나는 그날 나의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에 옮긴 것이다. 실천은 좋은 것이다. 실천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번은 순례를 하고 있는데 술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나를 초대해 음식을 대접해 주셨다. 음식을 고맙게 먹고 있는데 그분이 내게 이런 곳에 있는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지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식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지요” 라고 말했다. 음식을 다 먹고 막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맨발로 서있는 남자가 눈에 띄었다. 그 남자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미소를 지어 주었고 나도 그에게 미소를 지어 주었다. 그러자 그는 놀라서 “어! 당신이 내게 미소를 지어 주었어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는 말도 안 걸어줄 줄 알았는데 내게 미소를 지어 주었어요” 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또 한번 그 남자에게 미소를

지어주며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자 그 남자는 내게 바짝 다가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자신을 방어해 왔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평가해 보게 되었어요. 나는 정말 불필요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나는 내 가족들도 함부로 대하고 돈은 모두 술 사먹는데 쓰며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어요.”

나는 살며시 나의 손을 그의 어깨에 올리며 속삭였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 남자는 자기 손에 들려있는 술병을 너리운 물건 보듯이 쳐다보더니 병을 던져버렸다. 그 남자는 내 눈을 쳐다보더니 “당신에게 맹세하는데 다시는 이런 건 손도 대지 않겠어요. 절대로” 하며 나갔다. 문을 나서 좁은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일년 반쯤 지났을까, 같은 동네의 한 아주머니로부터 이 남자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그 남자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 남자는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으며 좋은 직장을 구해 가족들과도 잘 지내며 교회에도 나가며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정말 해피 엔딩의 이야기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만나면 그들은 방어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으로 친절로 편견과 판단 없이 대한다면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변화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미국 횡단을 마쳤을 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무사히  
끝날 수 있게 해 주신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어주시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며 내 스스로에게 말하였다.  
첫 횡단을 마치고 뉴욕 시에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에서 잠이 들었다. 잠이 폭  
들지도 않고 깨있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목소리는 내게 “너는 사랑스런 나의 딸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내가  
눈을 떴을 때에는 마치 장대한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를 끝마친 거 같이 주위는  
조용했으나 내 귓가에는 무엇인가가 맴도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또다시  
차가운 아침공기 속으로 나가야 했지만 나의 마음은 따뜻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걷고 있었지만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때의 그 느낌은 한참 동안 날 떠나지 않았다.

## 제 4 과:

# 나의 순례의 반영

내가 처음으로 “평화 순례자”라는 글을 달고 걷기를 시작했을 때 내 등 뒤에는 10,000 마일(1609.3 킬로미터) 걷기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곧 25,000 마일(40232.5 킬로미터) 걷기로 바뀌어야 했다. 나는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해 미국의 사십 팔 개 주를 다니며 순례를 했다. 1964 년에 워싱턴 디씨를 마지막으로 난 거리 재는 것을 그만 두었다. 난 25,000 마일을 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거리를 재는 것은 내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기만 할 뿐이었다. 거리측정이 되어있는 길은 거의가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거리를 재려면 지도상에 거리가 표기되어있는 길로만 다녀야 했다. 나는 바닷가, 산길 등을 걷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곳은 거리조차 지도에 표기되어있지 않았다.

순례를 하며 연속 세, 네 끼를 먹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난 배고픔조차 느끼지 못하였다. 최고로 3 일까지 굶어본 적도 있다. 그럴 때면 자연이 내게 음식을 주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나의 식량이 되어 주었다. 나는 금식기도를 하며 45 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적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 동안 음식 없이 살수 있는지도 안다. 나의 문제는 얼마나 충분히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필요 이상 먹는 것을 막을 수 있나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날 필요 이상으로 먹게 했다. 오히려 먹지 않고 걷는 것 보다 잠자지 않고 걷는 것이 더 어려웠다. 어떤 때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걸어야 할 때도 있었다. 1977 년 9 월에는 트럭 정거장에서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곳이 굉장히 바쁜 정거장이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 대화를 하느라 밤을 새 적도 있다. 아침에 식사를 대접 받고 또 끝장 길을 떠났었다.

한번은 트럭 운전사가 가다 말고 서서 내가 텔레비전에서 끝없는 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았다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었다. 그는 전에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을 구출하는 작업을 도왔었는데 습고 배고프고 며칠을 쉬지 않았었는데도 피곤함도 모른 채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 트럭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힘이 나오지 않는다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운전사에게 좋은 일을 위해서 일을 할 때만 자신도 모르는 그런 힘이 나온다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해줬다.

나는 하루에 길에서 몇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5 마일(40.23 킬로미터)을 걷는다. 어떤 날은 쉬고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 하루에 50 마일(80.465 킬로미터)을 걷은 적도 있다. 날씨가 추운 밤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걸을 때도 있고 날씨가 아주 더울 때에는 밤시간에 더 많이 걸을 때도 있다. 한번은 키가 6 피트 (182.8 센티미터) 되는 건장한 남자가 같이 걷자고 해서 33 마일(53.11 킬로미터)을 걸었는데 남자는 더 이상은 근육이 아파서 못 견뎌다고 한 적이 있다. 나는 그러나 안에서 나오는 넘치는 에너지로 아무렇지도 않았다. 한번은 어느 여자가 같이 걸으면 안되겠냐고 해서 괜찮다고 함께 걷자고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로부터 도망가고 싶다고 내게 말했다. 그녀는 부름은 받고 있었지만 남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순례를 하는 그녀의 동기는 적절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여자는 하루 동안 나와 함께 걷고 싶다고 해서 함께 걷는데 정오가 되자 지쳐서 견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 짚으로 버스를 태워 보내야만 했던 적도 있다.

나는 한번도 걸으면서 위기를 느껴본 적이 없다. 술 취한 남자들이 나를 차로 따라온 적도 있었으나 걸 옆으로 비켜서니 그들도 그냥 가버렸다. 한번은 한

남자가 트럭을 몰고 가며 나에게 1 달러 지폐를 맡아 던지고 갔다. 아마 내가 길을 떠돌아 다니는 방랑자인줄 알았던 모양이다. 난 그 돈을 다음 도착지인 교회에 내놓고 왔다. 한 대학생은 내가 주시를 당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난 그 질문에 동전 하나 없는 나를 누가 주시하겠느냐고 대답했다.

하루는 몇 시간을 걸었는데 구름이 끼더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난 그 당시 아직 읽어보지도 못한 편지들을 가득 들고 있었다. 어디 비를 피할만한 곳이 없나 둘러보는데 마침 주유소가 보이는 것이었다. 그곳 주유하는 곳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나에게 밖에 서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쳤다. 그 안에는 조그만 식당이 있었는데 손님 한 분이 나를 알아보았다. 그제서야 난 내가 남쪽 국경 근처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남자는 나에게 저녁과 그날 저녁 쉬고 갈수 있는 방을 주었다. 그 다음날에도 역시 난 아침대접을 받았다. 그곳에서는 노름이 한참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나를 너무 편하게 대우해 주었다. 난 또 한번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많이 쉬어가곤 한다. 플로렌스와 아리조나주의 시청 회의실 테이블 위에서, 아리조나주 탐스톤이라는 곳의 엔진소에서 쉬어간 적도 있고, 얼음장처럼 추운 주유소 화장실에서 열 세시간을 견뎌본 적도 있다. 출기는 했어도 내게는 조용한 나만의 장소였다. 나는 길가의 풀 위에서도 침대 위에서처럼 편하게 잘 잔다. 쉼 곳과 음식이 내게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해도 내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 내가 한번도 보지 못한 낯선 사람들이 날 도와 주었고 쉼 곳이 없다 해도 내게는 버스 터미널, 기차역, 트럭 휴게소 같은 곳이 있었다. 하루는 한 고급 모텔의



큰 사이즈 침대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은 24 시간 주유소 콘크리트 바닥에서 자야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난 두 군데에서 모두 편하게 잤다. 몇 번은 친절한  
경찰들이 비어있는 구치소에서 쉬고 가게 해 준 적도 있다. 쉴 곳이 없을 때에는  
그냥 하나님의 보호아래 들판이나 길 옆에서 쉬어가고는 했다.

다리 밑이나 버려진 집, 빈 창고들도 내게는 휴식처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쉼터는 하늘이 맑은 저녁 들판 위의 별 단에서 자는 것이다. 그럴 때면  
하늘의 별이 내 이불이 되고는 한다. 묘지 역시 내겐 좋은 쉼터이다. 묘지에는  
사람도 없고 잔디도 잘 정돈되어 있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아서 좋다. 어느 날  
아침 너무 시끄러워 눈을 떴더니 벼단을 자르는 커다란 농기계가 내 위를  
지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난 껌싸게 옆으로 몸을 피해 살수 있었다. 난  
항상 나의 순례의 길에서 보호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계획에는  
실수도 없다.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사랑과 믿음을 갖고 걷는 사람보다 더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밤에 갑자기 추워진 때가 생각난다. 낮에는 그럭저럭 따뜻하고 괜찮았는데  
밤에는 몹시 추웠다. 그때가 가을 이었는데 주위에 마을은 없고 나무만 늘어 서  
있었다. 그날은 일요일 이었고 마침 해가 지고 있었다. 좀 이상한 일이지만  
누군가가 일요일 신문을 읽고 그 숲 속에 신문을 버리고 간 것이다. 나는 낙엽을 잘  
정돈하고 그 신문을 깔고 덮고 잤다. 아침에 일어나니 사방에 서리가 내려 있었다.  
그러나 난 낙엽과 신문지에 쌓여 따뜻하게 잘 수 있었다. 만약 밤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처럼 해 보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딘가 가고 싶은 마음에서 휴가를 갖는다. 순례 중에  
휴가가 가고 싶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가을에 남쪽을 횡단하며

수확하는 모습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 낙엽을 보며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행복했다. 또 북쪽은 어떠한가. 몇 주도 아니고 몇 달 동안 피어있는 봄 꽃들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림이다. 난 순례를 하며 이 모든 자연의 멋을 감상할 수 있었다.

여러 크고 작은 마을을 다니며 뉴 잉글랜드를 가로질러 1,000 마일 정도를 걷고 있었다. 들판의 사과, 딸기, 블루베리가 모두 나의 맛있는 식사가 되어 주었다. 이렇게 자연적이고 정겨운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큰 규모의 고속도로 공사 표지판이 내 눈에 띄었다. 넓은 아스팔트 길이 이 예쁜 산과 들판 사이를 뚫고 들어올 모양이었다. 순례를 하면서 이렇게 오래된 길, 정겹고 예쁜 길을 걸을 수 있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절기마다 다른 색깔의 꽃들이 양탄자처럼 내가는 길 위에 곱게 깔려 나를 반겨 주었다. 물론 큰 도로들이 사람들이 다니기에 더 편하고 교통을 편리하게 해 준다는 것은 나도 잘 안다. 그러나 이런 딱딱한 큰 길들이 자연의 길을 모두 다 밀어내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 산 위의 오솔길과 꽃길이 큰 길에 치어 모두 없어지지 않고 그래도 보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작은 바람이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연말연시, 특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느냐고 묻는다. 그러던 나는 “걸으면서 보내요” 하고 말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연시나 공휴일에는 야외로 드라이브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에게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때이기도 하다. 한 크리스마스 이브가 생각난다. 그날도 밖에서 별을 보며 잤는데 그 중 한 별이 유난히도 밝아서 예수님 탄생을 알리던 베들레헴의 별도 저랬을까 하는 상상을 혼자 해보기도 했다. 어느 크리스마스에는 텍사스의 윌트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도시에 들어서자

마자 여러 색으로 반짝반짝 단장을 한 건물들이 나를 반겨 주었다. 도시 전체가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반겨주는 것 같아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날 난 내게 온 밀린 편지들을 읽었다. 사람들은 가끔씩 내게 연말연시가 되면 외롭지 않느냐고 물어보고는 한다. 그러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는데 어떻게 외로울 수 있겠는가. 나는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단 둘만의 만남을 갖는 것도 좋아한다.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음식이나 쉼 곳 등의 제공을 자주 받는다. 이럴 때면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길이구나 생각하며 감사히 도움을 받는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음식이나 쉼 곳 등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쉽게 주어진다는 것을 나는 항상 체험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넉넉히 채워주신다. 나는 아직도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을 받으면 놀라고 또 감사한다.

정말 좋은 친구들의 선물 덕으로 알래스카와 하와이에 갈 기회가 있었다. 1979년 여름 알래스카에, 1980년 여름 하와이에 갔었다. 정말 편하게 아무런 들고 다니는 짐 없이 다니는 그런 교육적이고 영적 부흥이 될 수 있는 방문을 구상했었다. 2주 동안 다니며 그냥 관광에 그치지 않고 이곳 저곳을 다니며 연설도 많이 했다. 사람들은 나의 순례 생활이 어떠한지 궁금해 했으며 나 또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많은 은혜를 받았다.

평화 순례에는 주위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한번은 16살 멕시코인 남자아이가 나의 순례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듣고 내가 그 아이 집 앞을 지나갈 때 뛰어나와 내게 자기 집에서 머물고 갈 것을 권했다. 그의 집은 거의 다

쏟어져 가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집이었다. 그날 또띠라와 콩 요리를 저녁으로 먹고 맛있는 아침까지 대접 받으며 손님대접을 제대로 받았다. 한번 메피스라는 곳을 지날 때에는 무서운 폭풍우를 만나 피해 있는데 한 흑인 가정이 나를 집으로 초대해 주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을 먹고 하룻밤 비를 피해서 잘 수 있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의 성의와 인정을 절대 잊지 못한다.

몹시 추웠던 어느 날 오클라호마의 한 대학생은 자기가 끼고 있던 장갑과 목도리를 나에게 벗어 주었다. 그날 저녁 기온이 0도 밑으로 내려가는 아주 추운 날씨였는데 인디언들은 내게 쉬고 갈 곳을 제공해 주었다. 한번은 누가 나에게 조지아 쪽으로는 걸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해 준 적이 있다. 조지아에서 14 명의 순례자들이 수감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 정말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조지아에서 평상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겠다고 해왔다. 순례를 하며 많은 소수민족 그룹의 사람들을 만났다. 내 조끼에 쓰여있는 “평화 순례자”란 글을 보고 내게 말을 걸어왔다. 나는 그들의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곤 했다.

물론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난 인종이나 사람들의 색깔은 상관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서는 반짝이는 빛이 난다.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물에게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내게 모두 아름답게 보인다. 우리 모두는 다른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 대하여 알아가야 하겠다. 우리가 걸모습은 비록 달라도 비슷한 점, 공통점이 더 많음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중요하고 각자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는 것이다.

## 제 5 과:

# 간단한 인생 살기

인생을 간단하게 하는 것도 내적인 평화를 찾는 한가지 방법이다. 인생을 간단히 하면 우리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편안해 지고 인생에서 조화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필요 없는 것에 너무 매달리거나 집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나도 내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자 내직과 외직, 영혼적인 삶과 물질적인 삶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인생이 그냥 간단하고 재미가 없는 삶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간단한 인생의 재미를 모른다.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부유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의 인생은 팍 차 있다. 인생이 너무 넘쳐도 낙관할 때가 있다.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갖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고 또 다른 무엇을 찾아 헤맨다. 인생을 간단히 정리 한다면 인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나는 장담한다.

내 인생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이 같다.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내게는 동전 하나 없다. 친구들이 내게 돈을 주어도 나는 받지 않는다. 우린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생각에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도 있다. 심지어는 담배, 음주, 음식 같은 것에도 노예가 된다. 나는 사람들이 끊지 못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로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담배도 술도 끊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한 사십여 년 전에 돈과 물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많은 백만 달러 부자들을 만나 봤어도 그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너무 부유해도 행복하지 못하고 빈곤해도 행복하지 못하다.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히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혼자 사는 여자가 있었다. 그러나 여자는 항상 불행 불만투성이었다. 나는 여자에게 “당신 혼자만 돌보면 되는데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라고 물었다. 그 여자는 “방 다섯 개짜리 집값을 내려면 쉬지도 못해요. 일을 계속 해야 해요” 라고 대답했다. 순간 나는 놀랐다. 방 다섯 개! 그 여자는 필요 이상으로 큰 집을 위해 손끝이 다 닳도록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일은 자주 생긴다. 사람들은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형편에도 맞지 않는 집, 차, 옷들로 치장하려 한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만은 생기지 않았음 한다.

또 다른 여자는 정말 부자였다. 큰 집에 자식들은 모두 자라 출가 했고 남편과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 사업이 잘못되어 집이 망해 집에 있던 옷만 갖고 나오게 되었다. 내가 안쓰러움을 표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했다. 다락방의 먼지도 안 털어도 되고 그 큰 옷장 정리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자유로워 본 적이 없다고, 마치 세 삶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여자는 남편과 조그만 아파트를 얻어 자유를 느끼며 새로운 인생을 만끽하며 살았다. 나는 이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아량도 배웠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남에게 자기가 배우고 느낀 것을 나누며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만약 자유롭다면 자연의 경관을 보며 하이킹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낮에는 햇빛을 쬐고 저녁에는 별빛을 보며 잠자고 하는 단순한 인생이 얼마나 좋은지 모두들 한번씩은 느껴봤음 좋겠다. 이렇게 자연에서 지내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목마를 때 물 마시고, 배고플 때

음식을 먹고, 추울 때 따뜻함을 느껴보고 하면서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게 된다. 물질적인 것들은 단지 사용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간단한 인생이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곧 배우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순례를 시작하기 전에 1952년 5월부터 10월까지 조지아에서 메인까지 2000마일 되는 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다. 정말로 바깥생활에만 의존하며 살았었고 내겐 양말, 신발, 블라우스, 스웨터, 이불 각각 한 개씩 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항상 물에 탄 오트밀을 흑설탕과 같이 섞어 먹었다. 이렇게 어려웠던 과정을 통해 나는 순례를 준비 하였다.

과일이나 야채를 나무에서 직접 따서 먹으면 정말 맛있다. 그러나 아스팔트 같은 땅에서 이 약, 저 약 이름 모를 농약이 뿌려진 과일이나 야채를 먹는다는 생각을 해 보아라. 뉴 잉글랜드 산에서 이슬이 내린 블루베리 따던 일이 생각 난다. 요즘 사람들이 이름 모를 가공 식품을 많이 먹는데 내겐 새벽 이슬 맞은 산에 있는 블루베리가 더 맛있고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옷은 매우 낡고 실용적이다. 나의 파란 조끼에는 주머니가 있어서 거기에 빗, 칫솔, 지도, 불펜 등을 넣고 다닌다. 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물에 빠지면 수영할 준비까지도 되어 있다. 나는 옷 한 벌이면 충분하다. 순례를 시작한 1953년부터 계속해서 이 조끼를 입고 있다. 나는 내 물건 관리도 잘 한다. 공동 화장실 같은 곳에서 옷도 빨아 입는다. 신발도 비싸지 않은 파란 운동화를 신는다. 난 맨발이어도 자유롭다. 신발 한 켤레를 갖고 1500마일 정도를 걸을 수 있다. 양말도 파란색을 신는데 이유는 파란색은 매도 잘 안타고 또 평화를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물건들이나 신발이 모두 닳아 떨어지기 전에는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순례를 시작한지 첫 몇 년 동안에는 스카프와 스웨터를 가지고 다니며 추울 때 걸치곤 하였었다. 하지만 곧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온도가 바뀔 때마다 나의 체온도 온도에 맞춰 변한다. 그래서 똑같은 옷 한 벌로 실내나 실외, 여름이나 겨울을 모두 난다.

나는 천새들처럼 여름에는 북쪽으로, 겨울에는 남쪽으로 이동한다.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날씨가 좋은 지역을 찾아 다닐 수밖에 없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사람들과 만나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도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기온이 올라가고 햇볕이 좋을 때에는 그늘이 반갑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나무 그늘에는 더욱 특별한 시원함이 있다. 구름도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다. 바위도 그늘을 만들어 준다. 인간이 만든 건물이나 표지판도 그늘을 만들어 주며 다리도 그늘을 만들고 비를 피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물론 모자나 양산 등을 통해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모자나 양산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가끔 너무 뜨거울 때에는 나무조각으로 햇빛을 피한적이 있지만 말이다. 한 기자가 나에게 우산을 들고 다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나는 대답했다, “우산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녹지는 않아요. 내 피부는 빙수가 되거든요. 조금 편한 것에 저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날씨에는 물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나는 물을 마시지 않아도 과일을 먹으면 하루 동안을 걸어도 목이 마르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돈 한푼 없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바로 건강, 행복, 내적 평화이다.



단조로운 삶은 성화로 가는 인생이다.

더욱더 평온하며 투쟁이 없는 삶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과거의 실패들이 성공으로 탈바꿈 한다.

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

단조로워지는 삶

## 제 6 과:

# 인생 문제의 해결책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에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순종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 삶에서 조화를 불러오고 불순종은 더 많은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의 조화가 깨어지면 그 사회 안에서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은 사회가 조화로워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개개인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들을 풀어 나갈 때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다. 사실 나도 사회 전체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배우며 성장하고 싶다.

나도 오래 전에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 어려움만 생각하며 다른 누군가가 나의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길 바랬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점들의 아름다운 목적을 알게 되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아무 고난과 문제도 없는 그런 인생을 꿈꾸며 바란다. 그러나 난 이런 인생을 권하고 싶지는 않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으로 이길 힘,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갈 것을 권하고 싶다. 고난과 역경, 문제점들은 배우고 자라는 과정중의 하나이다. 우리 삶의 문제들은 얼굴을 가린 은헤일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려 하지 않는다. 자랄 수 있는 힘을 데앗아가는 결과를 남기 때문이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그저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 주는 일이다. 내가 음식을 입에 넣어 주면 하루밖에 채워줄 수 없으나 먹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어려움은 우리에게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곳도 바라보라는 가르침을 준다. 몸이 아픈 것도 육체는 결국에는 껍데기 일뿐 우리의 생각이나 영적인 힘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모든 것을 내놓을 때 우리의 문제들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 문제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닌 기회가 될 것이다.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다. 허리가 아파 늘 고생 하여 항상 등 뒤에 베개를 받치고는 했다. 나는 이 여자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너무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보라고 권했다. 그런데 이런 나의 말이 받아들여 졌는지 하루는 여자가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께서서는 나같이 먼지 같은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런 고통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 후에 여자의 허리 통증은 사라졌고 다시는 아프지 않았다고 한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말이 이 뜻이 아닌가 싶다. 기도하는 자는 이처럼 긍정적인 곳에 마음을 두어야겠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잘못된 마음자세에서 온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한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섭리를 섬길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사업에 각자 해야 할 일을 갖고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해야 할 일, 부르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간단하다. 어떤 사람은 꽃꽂이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데 피아노는 너무 잘 치는 사람이 있다. 물론 꽃꽂이를 매일 배워서 늘 수도 있지만 피아노를 칠 때처럼 그런 행복을 못

느낄 수 있다.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고 더 나가서 교회에서 연주를 하고 하는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 피아노 연주가 이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 인 것이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동차를 고를 때보다도 더 신중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만약 부르심이나 응답, 확신을 받지 않았다면 누구도 이런 소중한 결혼이라는 관계에 발을 넣으면 안 되겠다. 부르심이란 결국 준비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부부가 서로 어울리지를 못하면 그건 큰 불행이다. “당신 왜 나랑 결혼했소?” 하며 싸우기 일수일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줄 아는가? 바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기 때문이다.

감정에만 빠져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빌기를 원한다면 먼저 용서를 빌어 평화를 찾아라. 자존심이나 잠시의 기분 때문에 고집을 피운다면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두 자매가 싸웠다. 동생이 용기를 내어 언니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언니 참 해 뜨는 모습이 예쁘지?” 하며 자연에 대해 말하는 말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편지는 두 자매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옛말에도 “미움은 그 사람을 다치게 하지 미움 자체를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는 말이 있다.

### 걱정하는 습관

오늘을 살아라! 어제는 꿈이고 내일은 비전이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잘 살면 어제의 행복과 꿈도, 내일의 비전의 희망도 모두 만들 수 있다. 걱정하는 것도 습관이다. 이런 습관도 고쳐질 수 있다. 걱정과 근심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걱정을 한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들이 왜 걱정을 한단 말인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손에 모두 단어놓고

돌아오는 생각을 하며 기도해 보라. 이것이 내가 걱정을 없애는 방법이다.

하나님께 모두 내 놓고 다 들어주시리라 믿어라.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는 잘 걱정하지 않는다. 과거나 미래를 위해 걱정할 뿐이다. 자주 현재의 중요함, 현재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다. 현재를 살지 않으면 삶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며 걱정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 화내는 습관

또 다른 나쁜 습관은 화를 내는 것이다. 화를 내면 많은 에너지가 손실된다. 화를 참으면 속병이 생기고 화를 발생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한 여자는 화가 나면 집안의 모든 유리를 닦으며 화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어떤 여자는 요리를 함으로, 어떤 여자는 악기 연주를 통해 화를 푼다고 한다. 어떤 남자는 화가 날 때면 물건을 집어 던지곤 했는데 이젠 화가 나면 조깅을 해서 화를 푼다고 한다. 그리고 조깅을 하니 오히려 화를 내는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운동과 같은 육체적인 활동들은 사실상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 두려움의 습관

두려움도 습관이다. 두려움은 배워지는 것이다. 두려움은 어떠한 일이 생길지 불확실할 때 생기는 것이다. 한 아이를 사람이 많은 곳에 데려다 놓으면 불안에 떠다. 그러나 그 아이가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과 친숙해지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이 천둥, 번개를 무서워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 현상인지 알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

대개 두려움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나올 수 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직접 부딪쳐보고 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익숙하게 한다.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을 피하지 않고 직접 대응하다 보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조금의 두려움은 괜찮지 않느냐고 물어온다. 나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도 두려움은 모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길을 건널 때 사고가 날까봐 좌우를 살피고 건너는 등의 두려움을 말한다면 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며 노력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길을 건널 때에도 좌우를 살피고 건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그저 안전에 민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조심하며 민감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난 생각한다. 그러므로 유익한 두려움은 없는 것 같다.

## 신의 보호

하와이를 순례할 때 경찰들이 내게 바다 모래사장에서 자지 말라고 경고한 적이 있다. 아마 바닷가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던 모양이다. 아름다운 섬에 두려움이 깔려있다는 것이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바닷가에서 그날 저녁을 보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반겨 주었다. 나는 그 바닷가에서 어떤 두려움도 느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나를 비롯해 바닷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호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정말 신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체험한 경험담이다. 내가 타고 있던 차에서 빨리 내려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두 번 있었는데, 한번은 두 명의 고등학생들과 차를 타고 로스엔젤레스의 포도밭을 지나고 있었을 때 이

학생들은 언덕을 얼마나 빨리 내려갈 수 있는지 시험해 보자고 하며 남은 차로 언덕을 전력을 다해 내려오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위험하였지만 나는 그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난 갑자기 마음이 편해 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한번은 위스키를 많이 마신 한 남자의 차를 타게 되었다. 나는 그 운전자가 너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운전을 해 주겠다고 권하며 내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한사코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다면 다음 교차지점에서 내려달라고 하고 그 차에서 내렸다. 길에서 있으니 지나가던 작은 트럭이 내 앞에 섰고 나는 그 트럭을 타고 갈수 있었다. 그런데 한 5마일(8킬로미터)도 채 못 가서 나는 아까 내가 탔던 그 차가 길 옆에 굴러 떨어져 나무를 박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내가 앉아있었던 그 자리에는 유리창이 깨져서 유리 조각들이 여기 저기 쫘뻛 있었고 차 지붕도 심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다행히 운전자석은 아무렇지도 않았고 운전자도 그저 가벼운 상처만 입었을 뿐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아찔했다. 그제서야 내가 왜 그 차에서 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미리 내다보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어리석게 두려움이나 걱정에 빠져서 사는 것은 좋지 않지만 적당하게 민감하고 주위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다. 바닷가에서 자는 것이 두렵다면 집에서 자는 것도 두려워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잠을 자다가 사고로 혹은 화재로 목숨을 잃었는가. 호텔도 마찬가지 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두려움에서 생판을 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인생을 전령하고 말 것이다.

나는 나를 보호하는 그런 음성이나 육감에 귀 기울인다. 앞에서의 차 사고 때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바닷가에서 자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고 계신다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나는 바닷가에서도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한번씩은 나와 같이 사고나 큰 일을 면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운이 좋아서였을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들이자. 그러면 모든 걱정도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중심의 성향을 갖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중심의 성향을 갖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알아야겠다. 그러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평화.....영원하라.....그리고 깨달으라.....내가 하나님임을.

평화.....영원하라.....그리고 깨달으라.....나를.

평화.....영원하라.....그리고 깨달으라.

평화.....영원하라.

평화.....

평화.....

평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식임을 깨닫고 모두 흠어져서, 그러나 영혼은 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랑을 전파하여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신다.



## 제 7 과:

# 영적인 삶 살기

처음에 순례를 시작 했을 때 나의 순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평화를 갈망하는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한 기도의 훈련 방법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나는 이런 기도 훈련을 위해 45일간 단식하며 기도한 적도 있다. 그러나 한두 해가 지나면서 나는 이런 기도 훈련이 더 이상 필요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나 장소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대상만 생각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된다. 중요한 것은 기도 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대상을 마음속에 품고 생활화하는 것이다. 길을 걸으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과 마음속으로 대화하며 그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종종 어떤 기도들은 집중을 요구할 때도 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있어 빠른 기도의 응답이나 도움을 필요로 한다든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에는 나의 마음과 생각 모두를 기도에 집중시킨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기도도 회상하면서 한다. 머릿속에 직접 기도를 그려보는 것은 내게 큰 도움이 되어 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전달되는 모습을 생각하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셔서 빛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 응답 해 주시는 것 같다.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안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 모르며 생활한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면까지 보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내게 반짝이는 빛으로 보인다. 나와 이 지구를 같이 밝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내 기도의 한 부분은 감사이다. 주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 대한 사랑도 물론 감사기도 중에 속한다. 기도에 대해 잠시 말 하자면 기도는 긍정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

### 기도의 방법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빛을 머릿속에 그리며 그 빛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생각을 하며 기도 할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은 그냥 각자의 마음 속에서만 머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다른 영혼을 깨워야 한다. 우리의 영혼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이고 이 빛은 반드시 이 세상 안에서 나누어져야 한다.

금색 빛이 당신에게서부터 퍼져 나오는 것을 상상해 보라. 우선 당신의 친구와 가족, 친척들, 세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이 전달되고 그 빛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라.

이러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로써 의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뻗으시는 손을 머릿속에 그려 보아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손이라 생각하라.

꼭 이런 식의 기도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타쳐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상하는 방법의 기도가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상상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써본 사람으로부터 상상기도의 큰 효능을 전해

듣고 나서 나도 그렇게 해 보았다.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해 주는 이 기도는 나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또 다른 기도 방법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드리는 감사 기도이다. 나는 늘 감사하며 산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감사하고, 나의 넘치는 에너지에 감사하며,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 난 이런 지속적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간혹 사람들로 부터 함께 기도하고 싶다면 “저를 위해 오후 4시와 저녁 9시에 기도해 주시겠어요?” 하는 부탁이 들어온다. 그러면 나는 말한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몇 시에 기도 해 달라고 말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몇 시에 기도 하든지 저와 함께 기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꼭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고 생활하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기도는 좋은 결과를 부른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힘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물론 기도와 행동은 관련이 있다. 잘 받아들여진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져 우리의 행동까지도 변화시켜 준다. 기도는 밖으로 보여지는 결과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응답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질 때 우리의 행동도 저절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기도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겠다. 하루는 밤 늦게 고속도로를 혼자 걷고 있는데 젊은 경찰관이 나를 세웠다. 그는 내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왜 혼자 다니고 있지요?” 물었다. 아마도 나의 안전을 염려해서 한 말일 것이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저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걷습니다. 그러므로 좋지 않은 것들의 관심을 사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두려워 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온다.’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좋은 일들을 빼고는.” 그러나 그는 나를 아무튼 경찰서로 데리고 갔고 그날 밤 구치소에서 지내게 되었다. 구치소 바닥에는 담배 꺾초들과 낡은 신문지들이 널려 있었다. 바닥에는 1인용 침대가 있었는데 그 침대에는 두 명의 여자가 비좁게 누워 잠을 청하려 하고 있었다. 여자들은 내게 전에는 여덟 명이 이 방에서 지내야 했었다며 바닥에서 자려면 담요 두 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나는 널려 있는 신문지들을 바닥에 깔고 담요를 덮고 누웠다. 생각보다 편안했다. 나에게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한 날이 이날만이 아니었다. 나는 어느 곳에서든 잠을 잘 잘수 있다. 만약 마음이 편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편하게 잘 수 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한 남자가 창살 사이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 남자에게 “왜요? 법정에 갈 시간인가요?” 라고 물었고 그 남자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남자는 자기는 경찰이 아니라 그냥 여자들을 보려고 들렀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동네에서는 흔히 있는 일로 남자들이 지나가다가 들려서 오늘은 어떤 여자들이 있는지 구치소 안을 들여다 보는 것이 무슨 장난처럼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다.

구치소 안에는 술에 취해 들어온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있었다. 이번이 일곱 번째라는 그 여자는 이젠 구치소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반면에 18살 된 한 여자는 구치소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인생은 모두 끝났다고 말했다. 나는, “이번이 내가 구치소에 들어온 지 두 번째 되는데 나는 구치소에 들어왔다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나는 그

여학생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고 이 곳에서 나가던 무엇을 할지 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 학생은 다음날 나가기로 되어있었다.

조금 있다가 한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나를 보았고 내게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순례자님의 사진을 신문에서 보았고 라디오를 통해서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며 나를 그곳에서 나갈 수 있게 해 주었다. 나는 구치소를 나오기 전에 빗자루를 하나 달라고 해서 방 인을 청소할 수 있게 여자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빗을 구해 주었다. 그 안의 여자들은 한 일주일 정도를 머리도 빗지 않고 지내서 머리카락이 심하게 엉켜 있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구치소에서 만난 18살 여학생은 도움이 필요한 진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여학생은 그동안 간절하게 기도 해 왔다고 했다. 아마도 그날 밤 내가 그 구치소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 여학생의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싶다. 그 학생과 나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내가 그곳을 나오기 전 그 여학생의 눈에서 희망과 기쁨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느냐이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데 보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규율 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만약 우리 인생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겠다면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혹시 그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의연하고 지내지는 않았는지. 나는 아름다운 자연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동하여 하시고자 하는 밑줄에 귀 기울인다. 하나님과 단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아름다운 풍경과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며 나는 이런 생각들을 내 인생에 적용하여 생활한다.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보다는 아름답고 힘을 주는 노래나 말씀 등을 듣는 것을 더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아름다운 자연이야말로 가장 큰 영감을 주는 것이다. 조용한 자연 안에서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단 둘이 함께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다. 나의 명상의 시간은 단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난 너무나 많은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얻는다.

젊은 사람들은 가끔 호흡운동이나 요가와 같은 명상 방법에 대해 물어본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명상법이 종교적인 관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의 경우를 보라. 나는 어느 특정한 명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명상의 시간에 내 주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나의 영감, 도보, 그리고 호흡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조용한 자연 속에서 걸으며 하나님 밑줄 안에서 명상하는 이 방법이 그 어떤 명상방법보다 내게는 도움이 많이 되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호흡운동이나 명상을 한다는 이유로 그들 자신을 영적인 단계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편하고 힘든 고역의 단계로 이끌어가기도 한다. 그렇다. 이 모든 것들은 정신적인 약과 다름없다. 만약 좋은 영양만 주어진다면 꽃은 저질로 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꽃을 피우기 위해 꽃잎을 찢고 한다면 그 꽃은 영원하게 다치게 될 것이다. 사람도 꽃과 마찬가지로이다. 적당한 영양을 주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면 저질로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영적인 향상이 필요하다고 느껴면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 새벽에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면 하루가 달라 질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평온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적인 인생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는 네 가지의 방법을 추천한다. 매일 혼자 침묵의 명상 시간을 가져라. 화가 나거나, 어느 나쁜 감정이 괴롭히거나 할 때면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가져라. (화가 나 있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고 충들을 피하라. 만약 화가 난다면 이런 모든 감정에서 떠나 기도하라.) 매일 하나님의 빛을 상상해 보아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나누어 주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 보아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은 성전이다. 그러므로 운동을 하여 몸을 건강하게 하라.

## 단식

나의 45 일간의 단식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당시 단식을 평화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훈련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시작하였다. 단식 기도는 내게 영적으로 큰 변화를 주었고 이 단식 기도를 통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는데도 모른다.

내가 단식 기도 중에 있을 때 단식을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한 최후 신경 클리닉 의사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는 한번도 건강한 사람이 단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건강한 사람이 단식을 하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했다. 그는 나의 친구였기 때문에 나는 그림 나를 한번 관찰 해 보라고 했다. 그렇다고 나를 진료 해 보라고 하지는 않았다. (나에게는 의사 친구들이 꽤 많다. 그러나 단 한번도 그들에게 나를 진료하거나 치료하게 한 적은 없다. 가끔 치과선생님이 된 친구들이 썩은 이빨을 고쳐주곤 했지만 말이다.)

내가 단식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은 오렌지 두 개와 자몽이다. 그래서 그리 목이 마르지는 않았다. 첫 삼일 동안은 아무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 이후로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실내온도의 물만 마셨다. 단식이 끝나고 첫날은 매 시간마다 싱싱한 오렌지를 짜서 마셨고 두 번째 날은 오렌지 두 개와 자몽 한 개를 섞어서 주스를 만들어 먹었다. 셋째 날에는 자몽과 오렌지 두 개로 만든 주스를 하루에 세 번, 이렇게 조금씩 양을 늘려 가 한 일주일 뒤에는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나는 그저 별 큰 노력 없이 단식의 규율을 따랐을 뿐이다. 단식 중에도 좀 걷기는 했지만 장거리를 걷지는 않았다. 의사인 친구를 돕기 위해 타이핑 하는 것을 돕기는 했다. 그러나 친구는 내가 버텨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지 내게서 타자기를 빼앗아갔다. 그래서 나는 하는 수 없이 타이핑 대신 손으로 적어야 했다. 친구를 찾아온 환자들에게 나가서 말도 걸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친구는 나를 염려했고 가능하면 나를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했다. 그래도 가끔씩 환자들을 만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곤 했다.

한번은 단식 중에 깨어있는 상태와 잠들어 있는 상태의 바로 그 사이를 경험하게 되었다. 나의 위에서 어두운 십자가를 볼 수 있었다. 내 위에 대롱대롱 음침하게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고 빨리 누군가가 저것을 내려서 버려야 한다고 생각 했고 내가 손을 뻗어 그 십자가를 내리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내가 그 십자가 쪽으로 들어 올려졌고 그 십자가보다 더 높이 올라 갔을 때 나는 아름답고 밝은 빛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높은 곳, 밝은 곳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난 무섭거나 두렵기보다는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었다.



## 회복

우리는 기도할 때 원인을 없애기 위해 기도해야지 단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회복 기도는 간단히 이렇다:

주님의 뜻에 저의 인생을 맡기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이 주님의 사업과 뜻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 해 주세요. 당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요, 당신을 섬기는 자들은 섬김을 받을 것이요, 당신을 은총 하는 자들은 은총을 받을 것이며, 당신을 섬기는 자들은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며, 만약 당신을 해치려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그들을 치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그 문제로 인해 생길 상황들, 어려움, 고통들을 해결하는 데에만 연연한다. 만약 내가 당신의 이웃에 있는 의사라고 가정하자. 당신이 몸이 불편하여 나를 찾아오면 나는 처방을 해 줄 것이다. 그러면 당장은 아픈 통증을 못 느낄 수는 있겠지만 병이란 원인 그 뿌리까지 다 치료한 것은 아니다. 이럴 경우 언젠가는 또 병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정말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 현명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그 증상을 없애달라고 하기 보다는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해 달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내지 않고 거죽만 치료하면 똑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나도 이런 사람중의 하나였다. 아주 오래 전,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였을 때 난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준답시고 그들의 이마나 목 뒤에 손을 얹어주곤 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 나는 그저 그들을 편하게만 해주었을 뿐 그들의 원인을 치료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일을 생각하며 기도한다. 나는 나의 문제들을 가장 의로운 손, 하나님의 손 위에 놓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한다.

### 생각의 힘

당신은 당신의 이기적인 생각의 노예가 되어있지 않은가? 아니면 종교적 가르침이 인생을 안내하고 있는가?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매 순간순간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을 아는가? 바로 우리 개개인에 의해 심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우리 주위의 상태를 만들어 간다.

“사람은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렇게 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조금만 더 깊숙이 들여다 본다면 우리는 육체적 나약함이 영적 나약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비관적인 생각과 나쁜 감정들은 그 어떠한 병균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다.

만약 생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는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어떠한 일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생각을 하며, 정말 이루고 싶은 일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쟁쟁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하여 잘 안 풀릴 거라는 말이나 어렵겠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것을 보았다. 이 얼마나 불쌍하고 이리석은 일인가! 우리는 생각을 통해 우리 주위의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행한 미래를 들으면 우리는 우리 모든 에너지를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그 반대로 부정적인 곳에 모두 허비하게 된다.

앞으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결과가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예언을 바꾸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나쁜 예언이더라도 좋은 미래로 바꿀 수 있다.

당신이 하는 좋은 말, 선행, 좋은 생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악은 선이 악을 이기고 누를 때까지만 존재하지만 선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냥 생각, 삶, 행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규율과 조화 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 누구를 만날 때마다 따뜻한 말, 표현, 행동으로 용기를 주어라. 이런 행동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열매를 맺을 것이다.

부패되어가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악은 사랑이다. 증오와 미움은 반드시 사랑으로 바뀌어야 한다. “평온하며 내가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라” 는 말을 기억하라.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우리도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네. 너와 내게서 흐르네. 포로들까지 자유롭게 하며 사막에 까지 사랑의 강이 흐르네” 라는 노랫말이 있다. 그렇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식임을 모르는 자들은 모두 포로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죽음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는 시험과도 같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 했을 때 우리는 이 시험들을 더 이상 시험으로 보지 않고 좋은 경험으로 보게 된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더 이상 시험으로 보지 않고 좋은 경험으로 보게 되었다. 눈보라에 죽을 뻔 한 적도 내게는 좋은 경험이었다. 그때가 순례를 시작한 첫 번째 해였고 그 죽을 뻔 했던 고비가 나에게서는 나의 가장 아름다웠던 경험 중 하나이다.

인적이 드문 아리조나의 높은 산을 오르고 있었을 때이다. 어느 날 오후 눈이 내릴 시기도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눈보라가 불어왔다. 태어나서 그런 눈보라는 처음 본거 같다. 눈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내렸고 차들도, 고속도로의 표지판들도 모두 눈 속에 숨었다.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했고 나는 내 얼굴 앞에 있는 내 손 조작도 볼 수 없었다. 눈보라는 내 얼굴을 차갑게 내리쳤고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정말 뼈 속까지 저린 추위가 몰려왔다.

만약 내가 겁을 먹고 믿음을 잃었다면 그날 난 아마 죽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누구도 주위에 없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어서 추위와 눈, 어둠은 더 이상 현실같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만이 떠올랐고 하나님만이 현실로 내게 다가왔다. 하나님께 나는 매달리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자유로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 같은 느낌이 들었고 내가 걸을 때면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걸어도 내가 지금 걷고 있는지, 어디를 걷고 있는지 전혀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내 발은 추위에 무감각 해 지고 마치 몇 톤씩 나가는 것처럼 무겁게만 느껴졌다.

이렇게 무감각과 고통을 느끼자 환각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두 손만 뻗치면 만지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짜처럼 보였다. 너무 아름다웠다. 여러 무지개와 따뜻한 빛을 보았다. 귀에 익숙한 음악도 들려오는 듯 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움직이는 사물도 보았다. 마치 사람 같았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자세히 보니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간 내 친구였다. 그제서야 난 내가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늘나라에 먼지간 내 친구들이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웃으며 나에게 오라고 손짓했다. 마치 그곳은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인 것처럼 말이다. 나는 내가 가야 할 시간이 온 것이라 생각하고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날 떠중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친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에게 돌아가라는 손짓을 했고 그 때에 나는 한 다리에서 떨어지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깨어보니 내 앞에 다리 하나가 눈에 띄어 있었고 그 다리 아래에는 포장지들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다. 나는 종이로 내 몸을 감고 상자에 들어가 그 다리 아래서 잠을 청하며 눈보라를 피할 수 있었다.

누군가 나의 이런 모습을 보았다면 “아, 불쌍한 사람, 저런 일을 다 겪고” 하며 혀를 찼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무서움이나 두려움 없이 나와 늘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이 죽음 문턱까지의 경험은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경험이다.

나는 오히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죽음이 나를 변화 시키는 기회가 생긴 것이 기쁘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는 나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며 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다. 죽을 뻔한 나의 경험이 더 자유로운 삶으로 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 준 셈이다.

나는 내 머리가 하나 둘 하얗게 변한다 해도 지나가는 젊음을 후회한다거나 늙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흰머리가 나올 그 때의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내 영혼이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해 떠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흰머리 한 가닥, 한 가닥, 인생의 마디마디가 삶의 교훈이 된다. 인생의 매 순간순간에서 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값어치 있는 아름다운 삶이다.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제때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의 시간으로 되 돌아가고 싶어할 것이다.

## 종교

종교는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중요한 공통점들을 보기 보다는 서로 다른 점들을 찾아내어 구분 짓는데 급급하여 여러 종류의 종교들이 생겨났다. 종교는 기본적인 사상이 크게 다르다기 보다는 종교들의 신을 모시는 차례, 제도에 따라 나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종교란 여러 갈래, 여러 모양으로 보이나 결국에는 공통적인, 비슷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다. 만일 종교를 갖고 믿음을 갖고 싶다면 사물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디딤돌을 두어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보아라.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려고 하라 그리하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매우 신앙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어떤 단체에 속해있지 않다. 기독교도 여러 가지 지파로 나뉘어져 있으나 나는 그저 하나님의 규율,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려 할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원래의 목적을 잊고 그 집단의 상징, 관계, 그런 부속적인 것에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책은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따라야 할 규율들을 말로만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 생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만약 성경에서 진실을 찾고자 한다면 인쇄된 성경의 종이 페이지에서가 아닌 성경 말씀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느냐” 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신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또 “주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 네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셨다.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겠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께 감사 드린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규율을 지키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 사랑의 방식

악을 악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법의 교훈이다. 우리는 옛 것을 토반으로 새로운 것을 만든다. 악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연, 하나님의 규율을 췌다면 그것은 선이 아닌 악이다. 악을 없애기 위해 또 다른 악을 만든 셈이다.

전쟁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한다고 하나 전쟁을 통해 무고한 생명이 죽고 자연도 파괴된다. 선이란 오직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을 되돌려 받겠다는 생각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사랑은 핵으로 다 망가진 세상도 구할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존경과 책임을 다 해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와 친절로 도우며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식으로써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보다 더 큰 그런 힘이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가? 이것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 보호 아래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비롯한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의 넘치는 기쁨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처지에서도 평온을 찾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기쁨에 넘쳐 기쁨이 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처럼 행복을 느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내게는 오직 한가지 소망이 있다.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순례를 하라고 인도하시면 난 기쁜 마음으로 순례를 할 것이다. 나에게 다른 일을 하라고 하셔도 난 무슨 일이든 기쁜 마음으로 할 것이다. 만약 내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일이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굽히지 않고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사업의 도구이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힘, 방법, 방향까지도 모두 주실 것이다. 그 길이 쉽든지 어렵든지



하나님의 사랑, 평화, 기쁨의 빛 안에서 난 해 낼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우리 모두를 위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금 이 순간에도 애타게 찾고 계신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기심을 버리고 비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규율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 속고하게 하는 생각들

그 길로 가보지 아니하고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다. 누군가에게서 대신 얻을 수도 없고 또 누군가에게 대신 줄 수도 없다. 원하는 길이 있다면 자기에게 가장 쉬운 길부터 조금씩 발걸음을 옮겨 보라.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길을 이루어 나가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사업에서의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안다면 절대로 부적당하다거나 부족하다는 말은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거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단 한 사람도 부족하거나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관계가 있다면 의심과 걱정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 삶에 주어진 각자의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사업,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뿐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한 것 같은 업적을 내세우려 하는 모습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영적인 삶은 진정한 삶이다. 하나님께 속한 삶만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다.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인생을 조화롭게 살 수 있으며 영적인 것을 좇을 때 선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누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과는 역지로 찾아내려 해서는 안되며 회당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선행, 따뜻한 말 한마디, 긍정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영적인 평화를 찾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실패해서가 아니라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우연히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들이 규율과 법칙 안에서 일어난다, 바로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영적으로 우리를 다치게 할 뿐이다. 오직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자기 중심적인 인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살 가치조차 없는 삶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이익을 주는 일이라면 그런 일은 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그의 길은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길이다. 진리는 간단하다 그러나 진리대로 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리하여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간단한 진리를 여러 복잡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다.



나이에 상관 없이 누군가를 가르치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단어 또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 배우고자 하는 흥미와 관심을 잡았을 때 우리는 그들이 갈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그들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우리의 수준보다 더 앞서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가르치게 하라. 영적 성장의 길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 이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또 가르침을 주며 모두 함께 그 길에 이르러야 하겠다.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공존한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 자신감과 의욕을 가질 수 있고 실패를 통해 강하여 진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 할 것이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물을 본다면 자세히 볼 수 없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물을 관찰할 때 사물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에 살아라. 끝내야 할 것들을 먼저 끝내라. 매일매일 그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라. 그럼 미래가 펼쳐 질 것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 우주의 규율과 원칙이 개인의 편리를 위해 바뀔 수는 없다. 우리는 인생이 주는 모든 것들을 배움의 경험으로 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 들여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른 누군가가 대신 손가락으로 떠서 먹여줄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을 배우는 사람들, 인생의 목적을 찾는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혼자 걸어야 한다. 그 누구도 대신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산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 무엇으로도 켈 수 없을 만큼 강해진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불쌍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악 영향을 준다. 얼마나 쉬운, 아니면 얼마나 어려운 문제 이든지 간에 먼저 문제점을 찾아라. 이런 상황들은 영적 성장의 기회이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라.



내적 평화를 갖기 위해서는 재산, 소유물만이 아닌 우리의 인생 전부를 내 놓아야 한다. 인생 전부를 내 놓을 때 내적 평화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다.

## 제 8 과:

# 평화로 가는 길

평화로 가는 길은 악을 선으로, 거짓을 진실로,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다. 전쟁이 나쁘다는 것, 왜 전쟁을 하면 안 되는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제거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고 이것은 더욱더 큰 악을 낳을 뿐이다. 오직 선만이 악을 이길 수 있는데 말이다.

평화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간단하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메시지이겠지만 바로 “사랑” 뿐이다. 사랑은 거대한 힘을 발휘한다. 모든 것을 이기고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그 어떠한 군대보다도 강하다.

하루는 고속도로 옆을 걸으며 이런 노래를 불렀다. 귀에 익숙한 음에다가 평화에 관한 가사를 붙여서 불렀는데 곡의 내용은 대강 이러하다:

이 세상은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 세상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큰 파괴력을 준비하고 있다.

적과의 언쟁이 높아지고 역하는 소리가 커져감이 들린다.

그러나 이 세상은 피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다.

나는 기도한다. 평화, 평화를 위해!

핵 폭탄은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멸망하리라”고 말하고 있다. 핵 전쟁은 더 이상 어느 한 군대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싸우는 두 편 모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우리에게는 정말 평화를 위한 건설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어쩌면 우리는 인류 사에서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른다. 많은 이들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핵 전쟁이나, 평화나, 국가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조약체제, 거래, 타협, 협상, 이런 것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결정은 그들 자신들에게만 해당하는 결정이 아닐 것이다. 전쟁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한 그런 뜻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자꾸만 전쟁과 피멸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돌려야 하겠다. 이렇게 평화를 위해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은 더 이상 몇몇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다. 지금이 바로 평화를 위해 일어선 때이다.

최후의 평화는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 주위 사람들간의 다툼이 없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도우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할 때, 이렇게 우리 각자가 변하고 이런 변화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 갈 때 큰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약한 생각, 난폭한 생각을 없애려 하기 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걸음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넘어가는 때가 사실은 더 많다.

우리는 개인의 내적 평화를 위해 수고할 때 세계 평화를 함께 얻을 수 있다. 내적 평화를 찾으려 할 때 그 사람은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외의 더 큰 울타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세계평화도 마찬가지 이다. 세계 평화를 갖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평화를 소유해야 한다. 개개인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세계 평화도 절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평화를 위해서는 조화가 필요하다. 나는 내 안에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찾고 다른 사람들과도 조화를 찾으려 한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외면하라는 것은 아니다.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는 특히나 더 평화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전에도 말했지만 좋은 생각과 행동, 기도는 우리가 볼 수 있던지 없던지 간에 좋은 결과를 가져 온다.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난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산과 언덕을 넘는 것과는 같아서 잘될 때가 있으면 안될 때도 있는 것이다. 평화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평화를 원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사람들의 무덤덤한 마음, 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찾아주고 좋은 일을 향해 그들의 마음과 눈을 돌려주는 일이 바로 평화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평화는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생각의 힘이 그 정도로 위대한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하겠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겠고, 평화를 위해 말해야 하겠으며, 다른 사람도 이 평화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평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라고 확신해야 한다. 한 사람이 평화를 위해 이렇게 노력할 때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할 때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하루는 어떤 부인이 내게 물었다, “순례자님, 저도 당신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가능한 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되물었다.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불가능 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평화는 가능한 일입니다. 난 확신합니다. 다만 그 일이 얼마만큼 빨리 이루어지는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바로 순례를 해서 얻는 게 무엇이나? 달라진 게 무엇이나? 결과를 묻는 질문들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결과를 보지 않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었다고 대답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입증되지 않은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들어 날 것이다. 그리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난 벌써 나의 평화 순례를 통한 변화, 즉 결과를 보고 있다. 사람들이 나의 순례모습을 보고 또 순례 메시지를 듣고 자기도 평화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느꼈다고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고, 사람들이 국회에 평화에 대해 편지를 보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며 곧 모아져서 큰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안다.

지금 되돌아 보면 나의 순례가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순례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처음 이 순례를 시작 했을 때 사람들은 전쟁을 그들이 당연히 치러야 하는 것으로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처음과는 달리 가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전쟁보다 평화를 생각하며 지지하고 있다. 순례 초기에는 대학교를 방문 해 보면 2/3 가 넘는 학생들이 불가지론자 이거나 무신론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인생에서 아님 영적으로 그 무언가를 찾고 있거나 찾으려 하는 학생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희망적인 신호가 아닌가 싶다.

세계평화나 내적 평화에 두려움만큼 방해가 되는 것은 없다.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를 크게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상대방을 미리부터 방어하고 증오하기 시작했다. 이런 증오가 꼭 전쟁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성으로라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비관적, 부정적인 곳에 신경을 쓰게 되고 두려움 속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다가올 것이다. 이 세계가 얼마나 지금 사랑과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두려움과 증오보다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필요할 때인 거 같다. 평화와 자유! 언제나 누릴 수 있게 될까. 지금 당장이 될지, 어떠한 큰 멸망과 붕괴가 있는 후가 될지,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고 나서가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단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우리는 평화적인 길을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며 생각해야만 하겠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만을 바꿀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는 것은 더욱 어렵고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고 그 새로운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변화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낄 때 주위 사람들도 하나 둘 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겪는 어두운 시대는 하나님의 규율 안에서 조화를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두 나라간의 싸움도 그 나라간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두 나라간의 생각과 믿음이 다른데서 오는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사상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존재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특히 힘있는 나라들이 전쟁의 길을 그들의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이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몇 천년 전부터 조상들이 가르치던 방식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가르침도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교훈이었다. 우리는 결코 믿음을 잃어선 안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세계가 평화로워 지려면 우선 사람들이 평화로워져야 한다. 한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 지는 것처럼,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시대가

지나면서 성숙해져야 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를 위해 변하여갈 때 우리 지도자들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어 갈 것이고 더욱 더 나은 시대가 올 것이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우리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 개개인이 마음의 평화를 가질 때 더불어 사회, 국가도 변하게 된다.

하루는 한 기독교 신자가 나에게 답답한 심정을 털어 놓았다. 그 여자는 지금은 겉으로 보여지는 힘이 존중을 받는 시대이고 여태까지 그래 와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기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들어 왔지만 실제 생활은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그녀는 또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말이 맞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 많은 악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가 하나님은 섬기지만 하나님 사랑의 법칙 안에서 실천하는 믿음은 없다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대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나에게 자책하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했다.

한 캐나다 교회 목사님은 동양 불교에서는 2000 명이 넘는 스님들을 사회로 내보내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폭력은 쓰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 2 차 세계 대전 때 미국의 선데이 학교 선생님이 일본 군인을 체포했었을 때 일이다. 그 선생님은 일본 군인이 영어를 말할 줄 아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본 군인은 미국 선생님에게 “자기도 전에는 기독교인이었었다” 고 말했다. 선생님은 놀라서 “그런데 왜 이제는 기독교인이 아니죠?” 라고 물었다. 그 군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군인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제 2 차 세계대전에 무력이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도 다름대신 사랑을 나누

아름다운 4명의 덴마크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독일이 프랑스에 쳐들어왔을 때 프랑스인들은 독일군을 막기 위해 기뢰를 배치 순찰을 도는 독일군들을 죽였고, 독일군은 그에 대항하기 위해 거리를 폭파하며 프랑스인들을 마구 죽이는 상황이었다. 드디어 독일군이 덴마크에 들어왔을 때 덴마크인들은 프랑스인들과는 달리 평화적인 방법의 시위로 독일군에 맞섰다. 사람의 마음은 창자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가르침을 덴마크 사람들이 잘 응용한 것 같다. 독일군이 거리 순찰을 돌 때면 그들에게, “당신에게는 우리 나라에 이렇게 쳐들어올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당신들 나라에 마구 들어가도 괜찮다는 소리인데, 그러나 당신들은 집 떠난 젊은 청년들이니 아무래도 고향생각이 나겠지요.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니 자 그 총이나 내려놓고 이리 와서 우리와 함께 저녁식사나 하지요. 당신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냥 한번만 시도해보면 되는 것이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군인들은 “이렇게 착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곧 덴마크를 떠났다고 한다. 덴마크인들은 우리에게 평화적으로 대항하는 방법을 잘 보여준 것이다.

나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결혼하여 독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유대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녀는 16살에 결혼을 하여 17살 때 첫아이를 낳았고 18살 때 둘째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그녀의 나이 19살에 그녀의 인생에 세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영국군의 폭탄에 의해 그녀의 집이 모두 불타고 부모님을 잃게 된 것이다. 아마도 영국이 독일로부터 해방시켜주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둘째는 나찌 군에 의해 그녀의 남편이 어디로 인가 끌려가 지금까지 얼굴도 보지 못했고 생사도 모른다고 한다. 연락도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세 번째 그녀에게 일어난 사건은 미군의 폭탄에 의해 몸을 다치고 두 아이들은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던 것이다. 내가 이 유대인 여자를 직접 만났을 때에도 그녀의 몸이 성치 않음을 유관으로 볼 수 있었다. 이번에도 우리는 그녀를 해방시켜주려고 그런 것일까?

전쟁에서 다친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녀는 다른 피난 자들과 함께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고 있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늘 생각했다, ‘그들이 나의 몸을 다치게 하고 내 몸을 모두 망가트리려 왔어도 그들은 결국 그들의 영혼을 망가트린 거야. 그리고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이 더욱 나쁜 일이야.’ 그녀는 동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죽음을 당한 사람이나 죽이는 사람이나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준 가장 큰 영적 승리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여자의 적은 누구였나? 그녀의 집을 파괴하고 부모님을 죽게 한 영국이었을까? 남편을 죽인 독일? 아니면 두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자신의 몸을 모두 망가트린 미국일까? 그녀의 적은 전쟁이었다. 악을 더 세고 많은 악으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 폭력이 무언가를 이룰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이것들이 바로 그녀의 적이었고 이것이 진짜 우리 모두의 적이다.

인간이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에 처하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사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또 다른 새 시대를 맞을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는 그런 사회 전체와 개인의 복지가 안정되는 사회는 아직 오직 않았다. 이 시대는 더욱 경제적, 민주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는 더욱 정치적, 개인적인 민주화 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이다.

## 평화의 값어치

우리는 전쟁의 값을 치를 준비가 항상 되어있는 것 같다. 전쟁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소중한 것들, 우리의 수족이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 놓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들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서 결과로는 평화를 차지하려 한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평화를 차지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율을 어기고 평화를 가질 수 없다. 우리가 평화를 위한 값을 지불하려고 할 때에 만이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권력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세상, 욕심으로 찌른 세상, 거짓으로 속이는 세상에서는 평화의 값이 아주 비싸게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평화는 하늘의 법칙에 순종할 때 거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늘의 법칙, 즉 악은 선으로만이 이길 수 있고 증오는 사랑으로 이길 수 있으며 오직 좋은 목적과 좋은 생각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때 평화는 더욱 가까워 진다.

평화의 가치는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리라는 믿음과 대체하는 것이다. 평화는 증오를 버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아낄 수 있는 사랑으로 덮을 것이다. 평화는 거만을 버리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 평화로 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다. 또한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아무리 작은 것도 나눌 줄 아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이여, 평화를 위한 값을 치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만약 평화의 가치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의 연기 속에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두운 것도 하나님의 법칙과 반대로 가는 모든 것들의 분열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폭풍우 전에는 어두움이 있지” 라는 희망 없는 소리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평화로운  
시대로 가기 전에 있는 그저 거쳐야 하는 어둠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갖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며 기도 하여야겠다.

## 제 9 과:

# 평화주의자의 증가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평화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그저 알고만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가능한 한 그들의 생활 속에 난폭한 행동이나 폭력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전쟁에는 반대하면서 폭력적인 생활은 줄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화주의자가 될 수 없다. 평화주의자들은 폭력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폭력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허용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오히려 당연한 법칙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나 그리하지 인간의 세계에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소수의 단체이지만 나는 평화주의자들을 존경하고 아낀다.

평화주의자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폭력에까지 대항하는 평화주의자이다. 이런 평화주의자들은 화를 내지 않고, 화나는 생각, 화나는 단어조차 쓰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한다 해도 이런 평화주의자들은 분개하기 보다는 화를 낸 사람들을 동정한다. 평화주의자들은 증오는 더 큰 증오를 낳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사랑을 대신 보낸다. 사랑이 없이 무폭력의 방법을 쓰는 것은 힘들고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들이 마음 속에서부터 변하지 않았는데 평화로운 행동과 생각을 하기를 강요한다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그들을 육체적인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평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사회규율을 어기고 감옥에 가라는 뜻은 아니다. 한 사람에게 생기는 일은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 감옥 안에 갇혀있는 것 보다 감옥 밖에서 뜻있는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정의하는 두 번째 평화주의자는 사람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살생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몇 년째 고기나 생선도 먹지 않고 가죽이나 털, 뼈로 만들어진 제품을 쓰지도 않는다. 건강을 위해서 채식주의로 바꾸는 사람도 있다. 어떤 채식주의자들은 가끔씩 고기생각이 난다고 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 평화주의자들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고기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고기를 먹지 않으려 한다. 만약 도살장에 가본적이 있다면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해쳐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점점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누군가가 나서서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시대가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과거에 폭력을 써왔던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더 나가서 평화주의자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나는 이 평화주의자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서 평화주의자의 수를 더욱 증가시키길 소망한다.

(평화순례자가 늘 지참하고 다녔던 노트에서 나온 글들이다.)

오말 브레들리 장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전쟁은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전쟁을 막는 일에 실패한 자들은 전쟁에서 죽은 자들에게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나는 누구보다도 전쟁에 대해 잘 안다. 전쟁은 적군과 아군 모두를 파괴한다. 그리고 적군은 전쟁을 국제적인 논쟁을 해결한다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포장한다.”

로마교황 존 23 세: “만약 정부가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한다면 그 어떤 법이나 명령으로도 국민들을 구속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의 법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규율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이다.”

드와이트 에이젠 하워: “계속해서 총을 만들고 로켓을 발사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굶고 입을 것 없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도둑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전쟁의 무서움과 슬픔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전쟁이 우리의 문명을 모두 망가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며 미 국방 산업공단에 이같이 경고했다.

존 에프 케네디: “우리가 반드시 전쟁에 끝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우리를 끝낼 것이다..... 전쟁은 평화롭고 양심적인 전쟁 반대자들이 오늘날의 전쟁용사들이 듣는 그런 평판과 평성을 누리게 될 그날까지 계속 될 것이다.”

라이던 비 존슨: “총, 폭탄, 로켓, 군함, 이 모든 것들은 멸망의 상징이다.”

로마교황 존 폴 2 세: “인간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재난은 전쟁이다. 전쟁은 피할 수 없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하며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인류는 스스로 멸망하게끔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상과 포부, 필요한 것들은 전쟁이나 폭력이 아닌 다른 평화적인 방법으로 타협되어야 하겠다.”

뉴햄버그 재판에서 헤르먼 고어령: “사람들은 물론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왜 가난한 농부들이 농장에서 재배하고 수확하며 가족과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싶겠는가? 평민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 영국,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정치를 하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한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들이 민주주의자이건, 평화주의자이건, 독재주의자이건, 공산주의자이건, 국민들은 그저 그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되어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나라가 큰 위협에 빠져 있다고 말하며 애국심을 자아낸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들의 말을 믿게 된다. 이 방법은 시대에 상관없이 어느 나라에서나 다 통하고 있다.”

나는 폭탄 창고를 만들어 놓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또한 군사적 승리는 시간이 지나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군인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듯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류를 파괴하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에서 멈추고 전쟁의 씨앗을 없애는 일에 앞장서야겠다.

## 제 10 과:

# 아이들과 평화

나는 자식들을 꼭 평화의 방법으로 키우고 말겠다는 부부를 만난 적이 있다. 이 부부는 매일 저녁 네 명의 아이들에게 평화에 관하여 이야기 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 아빠가 첫째 아이에게 큰 소리로 고향을 치며 꾸짖었고 다음날 그 아이는 아빠가 했던 그대로 동생들에게 고향을 지르는 것이었다. 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게 된 것이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행동을 배우며 따라 한다.

아이들이 어릴 적에 좋은 영향을 주고 본보기가 되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렸을 때 봐오고 배운 사상과 교훈 등을 바탕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이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할 때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 때 그들은 옳지 않은 일에서 눈을 돌려 건설적인 일들을 더욱 찾아서 하려 할 것이다. 아이들은 모본을 통해서 배운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몇 백 번 한다 하더라도 보여지는 행동이 그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준다. 이것이 바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도전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는 현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사랑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가?

요즘 텔레비전의 아이들 프로그램을 보면 영웅이 악당들을 모두 죽이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장면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이 사람을 죽여도 영웅이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악당들이라 하지만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이는 것도 괜찮구나” 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 만약 우리들 모두가 내적으로 평화를 찾고 방송 프로그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영웅이 악당들을 모두 죽이는 장면 보다는 영웅이 악당들을 착한 사람으로 바꾸어놓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은 영웅이란 악당들을 죽이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아이들도 그런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어린 시절 올바른 생각의 틀을 잡아주는 것이 아이들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겠다.

내가 아는 한 선교사 중에 러시아에서 선교활동을 잠시 하신 분이 계시다. 이 선교사는 러시아에서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노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었다. 선교사는 신기하고 이상한 생각에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장난감 가게에 가 보았다고 한다. 그곳에서도 역시 장난감 총이나 무기류 등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런 장난감은 아예 팔지도 않았다고 했다. 호피라고 하는 인디언들과 십여 년 넘게 함께 생활한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내게 “평화란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지요. 한번도 누구를 해치거나 상처 주는 일이 없어요” 라고 종종 말하고는 했다. 평화의 길로 가는 교육이란 메로는 이렇게 작은 문화 속에서 시작된다.

미국에는 에미쉬라고 하는 세상 문명에서 벗어나 단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검정색 옷을 입고 있으며 자동차대신 마차를 타고 옷과 이불을 직접 만들어서 쓰며 농사를 하며 살아간다. 한번은 이들과 함께할 기회가 있었다. 이 사람들은 아기자기한 동네를 갖고 있었으며 평화롭고 안전하고 폭력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는가 나는 배울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이랬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나쁜 행동이라고 배워왔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남을 헤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 받는다면 우리도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여자분이 한 네 다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딸을 내게 데리고 와서 그 여자 아이에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나쁜 것이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란다. 불량식품은 먹으면 너를 아프게 한단다. 그래서 그건 나쁜 것이지.” 아이는 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 나서 내게 “좋은 것은 누군가를 돕는 것이예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나서 장난감 통에 다시 갖다 놓는 것은 엄마를 돕는 것이니까 좋은 일 이고요” 라고 말했다. 이 아이는 모두 이해한 것이다. 어떤 때에는 이렇게 간단한 것이 가장 좋은 설명이 되기도 한다.

내가 어렸을 적에 나의 부모님은 내가 잠자리에 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네가 곤히 될 수 있게 어두워진 거란다. 그러니까 편하게 좋은 꿈 꾸거라.” 이런 말들은 내게 어둠을 두려움이나 무서움으로 보다는 늘 편안함과 섬을 주는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내게 어두움은 오히려 나를 도와주기 위해 있는 친구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 밤길을 걷고 길 옆에서 잠을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움은 내게 무서움이 아닌 편안함이다.

아이들은 자라날 수 있는 뿌리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을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해주는 것이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현명한 일이 아닌가 싶다.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주는 일도 미래를 평화로 만들어주는 길이다.

## 제 11 과:

# 사회의 변화

사람들은 내게 종종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제안이나 해결책이 있느냐고 물어온다. 나는 개선책 중 하나가 공통언어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멕시코에 갔을 때 언어의 장벽을 절실하게 경험한 적이 있다. 나는 그저 통역관을 통해서나 미소를 통해서만 대화할 수 있었다. 큐벵과 캐나다에 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캐나다는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이고 큐벵 사람들은 학교에서는 불어로 수업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하지 못하였다. 나는 나의 메시지를 통역하여 전달 하였고 온몸을 이용한 바디 랭귀지로 음식과 쉴 곳을 제공 받았다. 대화를 할 수 없어 안타까웠고 이런 경험을 통해 세계의 공통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유엔의 책임자들이 어느 언어가 세계적 공통언어로 적합한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세계 공통언어가 결정되면 학교에서도 이 공통언어를 가르치게 될 것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대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세계 공통어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 평화로 갈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수 있을 때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울 수 있게 되고 서로를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민주주의와 사회

나는 민주주의란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노예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대신 결정짓는 것이다.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자신의 문제를 아래서부터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 조정한다. 하지만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 더 낡은 사람에게 문제를 맡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들의 인생을 조종하고 결정할 수 없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주어진 개인적인 민주주의가 있다. 예를 들어 소수의 단체 혹은 소수의 인종이라도 말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민주주의가 있다. 우리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만약 우리가 사회적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출신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고 각자의 장점이나 특기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런 민주주의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지만 우리모두가 계속해서 사회적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경제적 민주주의는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주의이다. 우리는 경제적 민주주의에서는 큰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나는 더욱 염려가 된다. 우리가 세계의 좋은 예가 되고 싶다면 우리 자신을 발전시켜야 한다.

하루는 내가 어느 친구의 집을 방문했을 때다. 텔레비전을 보니 두 개그맨이 나와서 쇼를 시작하기 전에 농담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한 개그맨이 “나 오늘 회사에서 메달 받았어” 라고 말하니 다른 개그맨이 왜냐고 되물었다. 그 개그맨이 “내가 그 회사 상품이 빨리 닳게 하는 방법을 알아냈거든” 말하니 방청객들이 모두 웃는 것이었다.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었다. 옳지 않은 방법까지 동원해 제품을 빨리 닳게 만들고, 소비자들은 필요하니까 또 그 제품을 살 것이다. 회사측에는 이득이 될지 모르나 이런 모습을 다음 세대가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이더 무엇을 배우겠는가? 사람들도 그 농담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함께 웃는 것이었다. 이런 것들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개선되어야 할 또 다른 것은 실업문제이다. 이 나라에는 칠 팔백만의 사람들이 직업이 없이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사회가 자신들을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도 상처를 받고 있다. 실업자들을 위한 개선 방안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을 갖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한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무슨 일이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길 바란다. 꼭 매일 몇 십 시간씩이 아니어도 짧은 시간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받은 것을 남에게 베푼다면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예를 통해서만 변할 수 있다. 만약 내게 그런 힘이나 능력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좋은 예를 만들 것이다. 나는 평화부(Peace Department)를 정부에 설립할 것이다. 이러한 부서를 통해서 문제들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 경제적인 문제해결 방안들을 조사, 연구 할 것이다. 그리고는 다른 나라에게도 이런 비슷한 부서를 만들어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하자고 제안 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다른 나라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동참해 줄 것 같다. 국가간의 평화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와 협력들이 세계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주는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될 것이다.

베트남 전쟁 중에 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나라가 지구에 평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 같으나?” 는 질문을 해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의 대답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미국이었다.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보았고 사람들의 이유는 모두 조금씩 달랐다. 동양 사람들은 미국이 핵 폭탄으로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는데 또다시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고, 남미사람들은 이번에는 베트남이지만 다음 번에는 남미가 될지 누가될지 어떻게 아느냐는 반응이었다. 유럽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쟁 때나 전쟁 준비 때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전쟁을 통해 큰 돈을 버는 나라도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언제든지 국익을 위해 전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이런 대답들은 너무나도 부정적이어서 어디에다가 발표하는 것조차 꺼려진다. 하지만 모두 들린 말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이 언제나 미국의 좋은 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마음이나 이유보다는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유엔이 더욱 더 발전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배가 고파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어느 한 나라만 생각하면 안 된다. 지구의 인류를 하나도 보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간에 필요한 것을 교환하며 나누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 평화활동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때에는 각 지역마다 지역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단체들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지역 평화회에 평화기도단체를 만들어 평화로 가는 길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 한 적이 있다. 입으로는 평화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보여지는 행동이나 생활

자체는 평화와 거리가 멀다면 평화활동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평화를 위해 활동한다는 것이 막연하고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입법부나 편집부 같은 기관에 평화에 관심이 있고 우려가  
 된다는 편지를 보내는 것도, 평화에 대해 배운 것을 친구들과 대화하며 나누는 것도,  
 사소해 보이지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큰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행사나 모임에서 한 국가나 세계의 평화에 관한 연설 혹은 발표를 하거나, 평화에  
 대하여 사람들과 토론하고 평화와 관련된 서적이거나 안내서 등을 나누어 주거나,  
 평화걷기운동, 평화 퍼레이드, 평화의 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에 대해 인식시키고 평화를 원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무심했던 생각과 사상들을 바꾸어나갈 수 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는 그렇지 못한 일을 할 때보다 더 큰 힘이 발산한다.

학교와 사회에서의 문화적 교류들을 통해 사람과 사람, 다른 인종과 인종을  
 이해하고 연결해 주는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평화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평화적인 방법의 해결책을 찾는 일도 여러  
 대학과 단체들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곧 내·외적인 평화를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보이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은  
 어렵거나 변하는 시대를 만나면 문제해결을 위해 좋은 해결 방안 책들을 선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왔다. 바로 지금이 세계의 관심을 평화 쪽으로 돌리고  
 그곳을 향해 나가는 그런 때 인 거 같다.

다시는 약해지면 안 된다. 우리가 모두 함께 마음을 한곳에 모은다면  
 아무리 큰 일, 군비축소나 세계평화까지도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하자!

## 제 12 과:

# 순례의 길

누군가 내게 평화 순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나고 물어본 적이 있다. 평화 순례자는 안팎으로 평화를 위해 일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평화 순례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평화로 가는 길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실천에서 멀어지는 것은 평화의 길에서도 멀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평화 순례자는 또 하나님의 규율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르는 사람이다. 평화 순례자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정면으로 맞서 대응하며 진실과 본성을 찾아주는 일을 한다. 순례자는 또한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을 복잡하게 보기 보다는 더 높은 목표에 이르기 위한 간소화로 본다. 평화 순례자는 성전인 몸과 생각, 동기와 욕망 등을 깨끗하게 하며 이기심, 나쁜 감정이나 느낌들, 세상에 얽매어있는 이런 모든 불필요한 것들에게서 가능한 한 빨리 해방되려고 노력한다.

원래 관습적으로 순례자는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걷는다. 나 또한 설 곳이 주어질 때까지 걷는다. 음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굶는다. 이렇듯이 필요한 도움이 내게 주어지기 전에 먼저 도움을 청할 수는 없다. 나에게 모든 것들은 주어졌다.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줄 줄 알아야 한다. 우리 마음의 중심은 남과 나누려고 하는 마음,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 많이 줄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지 않고는 줄 수도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삶은 꼭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진 삶이 아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도 실천할 수 있는 삶이다.

나의 임무는 평화 순례자로서 영적인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런 나의 책임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이 일을 위해 반짝이는 은이나 금, 칭찬이나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도 없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다는 것에 기쁘다.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전부는 그저 살아있는 하나님의 규율과 법칙을 전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영적인 평화가 있는 하나님께로 말이다. 나는 그저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찾아주고 싶다 그것도 돈 한푼 들이지 않아도 되는 공짜로 말이다.

“내”가 죽었을 때 나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과거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사람들도 더 이상 나의 과거에 대하여 궁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그 관심을 나의 메시지에 돌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누가 말을 전하던지 전하는 사람, 메신저는 중요하지 않다. 메시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저 돈 한푼 없는 평화라는 이름아래 떠돌아 다니는 순례자이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믿음의 힘에 의해 전진하는 사람, 영원의 지혜에 빠진 사람, 우주의 끝없는 에너지에 싸여있는 사람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어떻게 쓰실지 궁금했었다.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뜻 안에서 필요한 곳에 영광스럽게 쓰여지리라 믿는다.

나는 완전함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완벽해

지려면 멀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지만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해질 수 없다. 내가 만약 완벽하다면 무엇이든 다 알고 원하는 대로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롭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은 나를 바꾸지 않는다. 나는 모든 칭찬을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걸을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셔서 살수 있고, 말할 메시지를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 놓았을 뿐이다. 나의 인생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 왔고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 일이 바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며 다른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이처럼 행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처음 순례를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만 갖고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로스엔젤레스를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도 전에 모두 알아서 제공해 주셨다. 나는 정말 한번도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지켜 주셨다. 밤에 잘 곳이 없고 다음에 무엇을 먹을지 확실하지 않아도 한번도 불안한 적이 없었다. 영적으로 안정을 취하면 이렇듯 물질적인 안정은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것이다. 아마 나보다도 더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부자 중에서도 부자라는 것을. 나에게 건강과 행복, 영적인 평화가 있다. 이것은 억만장자라 해도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기쁘게 일을 한다. 나의 주위에는 온통 아름다운 것들 뿐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나는 아름다움을 본다. 이렇듯 나를 둘러싼 모든 것,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과 인류와 하나임을 느끼게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때 나의 행복은 더욱 더 늘어난다.

아는 것은 믿는 것으로 이어지고 믿음이 크면 행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도 옮길 줄 알아야겠다. 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을 응징하거나 선입관을 갖고 보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일은 사람들 안에 있는 신의 성품, 본성을 찾아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는 내적인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진실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그저 이해만 하고 있을 뿐 그 일을 직접 하지는 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믿음이란 오감이 경험하지 못하고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믿는 것이다. 믿음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쉬우나 믿음 대로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나에게 믿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나며 늘 우리를 찾으시는 그분의 은혜를 의미한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내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며 이것은 곧 영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영적인 축복과 은혜는 그냥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실로 원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해낼 수 있다. 이제서야 내 자신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나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큰 경험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순례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점점 흰 머리 수가 늘어갈 때 나의 친구들은

내가 미쳤다고 했다. 누구 한 명 내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 준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내가 전다가 죽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는 없었다. 나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실행해 나갔다. 나는 나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말해 주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고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는 각자에게 달려 있다고. 한길은 아주 잘 닦인 길이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고 그냥 편하게 갈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을 따라가 보면 어디에도 도착해있지 않다. 반면에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지 않는 길, 변화와 포기가 요구되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넘치는 영적 은혜에 다다르게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한 마음이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그게 정말 너야?” 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서 “너”는 육체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다. 육체는 참된 “너”가 아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중심이 된 자아를 말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다. 정말 참된 “너”는 영적인 영혼의 씨를 말한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중심의 상태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을 섬기고자 하는 본능이라 말한다. 힌두교에서는 너바나(nirvana)라 하여 극락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불교에서는 영혼이 깨는 것을 말하며 쿠에이커 교에서는 영혼의 빛으로 말하고 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제되어있는 영혼, 희망의 승리라고도 표현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다른 단어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뿐이지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을 찾고 섬기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표현 방식을 선택하든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 순간을 의식하고 있어야겠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경험이 바로 그런 경험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 하다못해 물, 공기, 나무, 식물, 지구 전체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은 그던 때를



말한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 중심의 본성이 우리 모두의 삶을 평화와 영광의 빛으로 밝게 해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읽든지, 우리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인생의 가르침에 있어서 혹은 진실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나 책을 통하여 얻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다. 우리 안에서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나를 위한 길이다” 라고 말할 때 비로소 행동으로도 옮겨질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책들을 읽고 좋은 강의를 듣더라도 결국에 무엇이 나를 위한 일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주위 사람들이 혹은 책들이 용기를 주거나 자극제와 같은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 안에 이렇게 깨어서 소리치는 음성을 들을 수 없다가나 그냥 읽고 아는 것에만 그치고 경험이나 행동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아무런 것도 이룰 수 없는, 가치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만약 책을 읽는다면 많은 책을 읽어라. 그리고 가능한 반대되는 많은 의견들을 접하라. 이렇게 할 때 자기 자신의 의견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각자의 인생에서 좋은 기억들을 생각하라.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은 생각하지 말라.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더욱 높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바로 자신의 참 모습을 말이다.

어떤 사람은 내게 제자가 있느냐고 묻는다. 물론 제자는 없다. 어떤 사람을 그저 막연히 따라가는 것은 건강한 생각이 아니다. 물론 존경하는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따라 하다 보면 내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각자에게 주어진 완성으로 가는 길,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과정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성장 과정과 걸리는 시간도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르다.

왜 나를 바라보는가? 자신을 돌아 보아라. 왜 내 말을 듣는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왜 내가 하는 말을 믿는가? 나나 선생님이나 그 누구의 말을 믿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 각자의 내면에서 나오는 음성을 믿으라. 이것이 지침표이며 선생이다. 나를 알기 전에 각자 내면의 자신을 알라!

나와 함께 걸자. 그러나 눈 먼 봉사처럼 막연하게 따라오지는 말라. 진실에 매달리지 절대 길에 보이는 외변에 매달리지 말라. 우리의 몸은 흙과 같아서 오늘은 여기 있어도 내일은 사라질 수 있다. 만약 오늘 나에게 기대면 내일 내가 함께 있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대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인간애, 자애에 매달릴 때 비로소 나와 가까워질 수 있게 된다.

탐구자,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의 길에는 함정과 유혹이 가득하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혼자서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주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빛대로 살아가려고 집중할 때 더욱더 많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신적인 내부의 길에서 가능한 한 많은 빛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며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몸이 아픈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정해야 한다.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육체가 불편한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의 정신, 내면은 우리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다치게 할 수 없는 곳임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불편질하고 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쁘게 앙갚음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을 선호한다. 나는 한번도 내 자신을 어떤 것에 반대하여 대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다만 조화로운 삶을 추구할 뿐이다. 무엇을 추구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한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반대만 하고 대응만 하는 사람은 해결책을 생각하기 보다는 문제점에 대책 없이 머무르거나 결과에만 연연하고 서로를 욕하고 헐뜯는 것에 그친다.

부정적인 접근 방법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주게 되지만 긍정적인 접근 방법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악이 악으로 공격을 당하면 잠시는 악이 약해 지거나 기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반드시 더 많은, 더 강한 악으로 다시 공격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공격은 악의 효력과 세력만 증진시킬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제압하거나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을 때에는 악의 힘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악인까지도 바뀌게 된다. 긍정적인 접근 방법은 영감을 주며 부정적인 접근 방법은 격심한 화를 부른다.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장 낮은 천성에 따라 때로는 난폭하게 때로는 이성을 잃고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영감을 주면 그 사람의 가장 높은 천성에 따라 현명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화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용기와 영감을 주는 일은 지속적인 영향을 남기며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것들이 올바른 것인지 가려주는 표준이 있다. 표준은 바로 “이 일이 나에게 내적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이다. 만약 내적 평화를 주지 않는 일이라면 무엇인가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내적 평화를 준다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도 괜찮다는 의미가 되겠다.

우리 자신에게서 평화를 찾는다면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함께 살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내적 평화는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 내적 평화는 인생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가능한 한 깊게 문제에 파고 들어가 문제를 해결 해 나가며 진실과 현실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찾아지는 것이다. 내적 평화는 자아, 구속,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들을 모두 포기할 때에 온다. 우리모두는 인류라고 하는 몸 안의 작은 세포들이다. 우리 개개인이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고 없이 이기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도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없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내적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인류라고 하는 가족 같은 테두리 안에서 평화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부록

부록 I:

## 평화순례자의 걸어온 발자취

1907: 미국 동부에서 출생

1938: “받는 것이 아닌 나누는 삶을 살자” 는 신념 아래 순례준비 시작

1953: 1 월 1 일: “평화 순례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받아들임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서 첫 순례를 시작

12 월 17 일: 뉴욕의 유엔본부 건물 앞을 마지막으로 첫 순례를 마침

1954: 45 일 단식

1955: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번째 순례를 시작. 각 주마다

백 마일을 걷고 가는 곳의 도청소재지를 방문.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걸음.

1957: 캐나다에서 천 마일을 걸음.

1964: 워싱턴 디씨에서 25,000 마일을 평화를 위해 걸음

거리 세는 것을 중단하고 계속해서 걸으며 미국을 횡단함

1966: 네 번째 순례 시작

1969: 다섯 번째 순례 시작

1973: 여섯 번째 순례 시작

1976: 처음으로 알래스카와 하와이 방문.

1978: 일곱 번째 순례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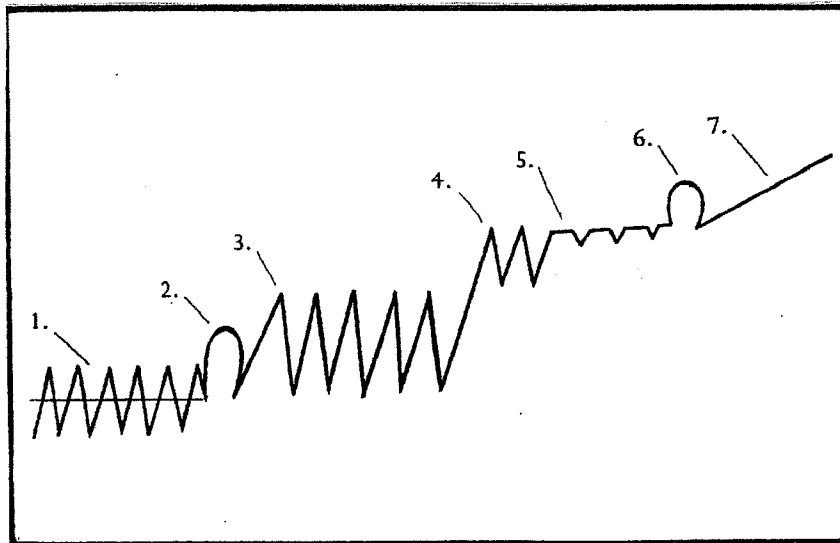
1979: 6월: 교육적, 영적 부흥을 위해 알래스카 방문

1980: 8월: 교육적, 영적 부흥을 위해 하와이 방문

1981: 7월 7일: 일곱 번째 순례기간 중 인디애나주의 낙스 근처에서 더  
자유로운 곳을 찾아 고별하심

부록 II:

## 평화순례자의 영적 성장 도표



1. 자기 중심적 본성에서의 감정 변화
2.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첫 번째 난관: 조건이나 단서 없이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김
3. 자기중심적 본성과 하나님중심적 본성과의 충돌
4. 첫 경험: 내적 평온을 맛보게 됨
5. 길고 긴 내적 평온의 정체시기 (슬럼프)
6. 드디어 내적 평온을 갖추게 됨
7. 계속되는 내적 성장과 발달



## 질문과 답들

평화 순례자는 매 해마다 몇 천명이 보내는 서신에 일일이 답장을 보내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우체국에서 그녀에게 온 편지들을 찾아 받아보곤 하였다. 물론 뉴저지에 있는 순례자의 친구가 순례자가 가는 지역 우체국으로 우편물을 보내주었다. 순례자는 편지로 질문에 대한 답이나, 어떠한 일에 대한 의견, 순례 계획, 과거의 순례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 보내었다. 순례자의 편지는 거의 "XX에서부터의 소식"으로 시작된다. 예를 들어 "아이오아에서의 소식"처럼 말이다.

문: 어떻게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답: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친절을 표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 이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과 자연을 만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진리 이십니다. 만물을 창조 하셨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여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며 우리는 하나님 손질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 품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적, 영적인 규율에 불순종 한다면 우린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규율에 복종할 때 우리는 조화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화 속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욱 크신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문: 좋은 인간관계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장점만 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사일에 중요하며 그분의 계획에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문: 영적인 성장은 빨리 될 수도 있나요? 아님 항상 시간이 걸리나요?

답: 영적인 성장도 육체적, 정신적인 성장과 같아요. 다섯 살짜리 아이가 일년 안에 어른의 키가 될 수 없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일년 안에 대학졸업을 할 수 없듯이 진정한 학생은 하룻밤 사이에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기대하면 안됩니다. 저도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걸요. 영적인 성장 과정은 매우 흥미롭고 즐거운 과정이에요. 더 빨리, 아니면 더 천천히 하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내적인 평안으로 가는 길을 즐기고 느껴야 하겠습니까.

문: 어떻게 내적 평안을 찾을 수 있나요?

답: 내적 평안이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전체중의 한 일원이고 자기 중심의 인생이 아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문: 완전한 사람은 행복으로 가는 열쇠라고 하셨는데, 가정에서 행복과 건강을 전하는 것, 모두에게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마음을 조정할 줄 알아야 하며 이렇게 마음을 조정할 수 있을 때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불교에서 가르치는데요.

답: 완전한 사랑이란 무엇을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단계에 이르게 되면 몸과 마음을 모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지요.

문: 부르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심이 있는 건가요?

답: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의 이치와 그 중요성을 깨달을 때 부르심을 알 수 있게 되지요.

문: 우리는 우리의 가르침을 받고 또 동시에 인류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나요?

답: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심 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조화롭게, 사교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도 성장하는 것이지요.

문: 인간의 목적,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우리의 인생을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 안으로 갖고 나오는 것이지요.

문: 하나님이란?

답: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시고 물질적, 영적 규율로 만물을 조정하시는 진리의, 아름다운, 친절함, 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상의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주를 화합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문: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지요?

답: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에서 벗어난 무조화의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문: 빈약한 생각과 개념에서 문제가 생기나요?

답: 우리가 신의 뜻에서 벗어난 삶, 조화롭지 못한 삶을 살 때에 우리를 조화로운 삶 쪽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가장 중대한 문제는 바로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수 있는 인생에서의 아주 짧은 시간을 지구에서 보냅니다. 미완성, 혹은 미숙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내게 되지요.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도 우리는 필요 이상의 음식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는 미완성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만들고 결국에는 전쟁을 합니다. 세계적인 문제를 다룰 때 보통 병의 증상만 치료하려 하나 저는 근본적으로 병의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자기자신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답: 만약 우리가 자신을 정말 잘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문: 어디에서 명상하는 것을 배우셨나요?

답: 저는 명상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걷고, 잘 받아들이고, 조용한 시간을 갖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좋은 생각과 방법들을 실행할 뿐입니다.

문: 명상이나 호흡운동법을 권장하십니까?

답: 저는 조용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단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권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영감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며 고요함에서 명상을 할 수 있게 되며 걷는 것을 통해 운동뿐 아니라 호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석 삼조를 경험할 수 있지요.

문: 명상을 통해 영혼이 깨어날 수 있습니까?

답: 만약 정말 명상에 잠긴다면 육체가 편안해 지겠고 육체를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정은 평온해질 것이고 마음은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기다려야지 강제로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조용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문: 당신은 인류나 인간을 사랑하니까?

답: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저는 기도와 은혜, 사랑을 통해서 인류와 사람에게 같은 생각, 언행, 행동으로 다가가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인류라고 하는 몸 안의 세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업 안에서 저는 이런 세포를 만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항상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저의 사랑과 희망들을 제가 만나는 모든 세포에게 전하고 싶고 저는 그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인류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류는 사랑하나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류와 인간 모두를 사랑합니다.

문: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선이 악보다 강하며 사랑이 증오보다 강하므로 선이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답: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선이 꼭 이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런 암흑의 시간들은 분열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신 하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은 불행해질 것이고 간절하게 다른 길을 찾기 위해 갈망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사람만이 평화와 평온 속에서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 어떻게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 생각과 행동의 나쁜 습관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만약 사회에서 돌아가는 일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그 일을 통해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노력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문: 당신은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으세요? 그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도요?

답: 저는 사람들을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원한을 갖고 있지 않으니깐요. 아무리 그들이 나쁜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동정이 가요.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다치게 한 것이니깐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그들 자신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빨리 낮게 되기를 바라니깐요.

문: 건강 사업에 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답: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건강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에만 신경 써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에 앞으로는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너무 병을 완화하기에만 바빴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인을 없애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겠습니다.

문: 우리의 영혼을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실을 볼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까?

답: 영혼은 진실을 봅니다. 영혼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면 당신은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당신은 영적인 목적 안에서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문: 왜 이 세상은 이렇게도 복잡한 것입니까?

답: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율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의 문제들이 사람들을 조화 속으로 이끄는 것이요요. 만약 지구에서의 삶이 우리의 영생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안다면 지구상에서의 문제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문: 언제 계몽이 옵니까?

답: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계몽의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문: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답: 어떻게 보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모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문: 당신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당신을 택하셨나요?

답: 저는 제 순례를 시작하기 전에 강한 동기와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순례를 시작했지요. 저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영적인 진실을

받아들이는 리제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놓으면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문: 자기중심적인 삶은 환상입니까?

답: 자기중심적인 삶은 우리의 육체가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는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문: 개인의 책임이라는 법칙도 있습니까?

답: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부조화의 삶을 사느냐 마느냐도 당신의 책임입니다.

문: 당신의 유토피아는 무엇입니까? 이 지구상에도 유토피아가 있나요?

답: 광범위한 외적인 유토피아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배우고 서로를 죽이지 않을 때 올 수 있겠고, 내적인 유토피아는 우리 모두가 내적 평화를 찾을 때 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유토피아를 찾기 전에 먼저 내적인 평화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외적인 유토피아는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단 내적인 것을 갖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문: 정말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답: 하나님을 바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작은 물방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바다에서 떨어져 지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다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곳도 알게 되겠지요. 당신은 비록 자신의 뜻대로 따르지 못하고 바다의 규율과 법칙 안에서 생활해야 하지만 바다에 속해 있는 것을 택할 수 있고 대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매우 행복할 수 있지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요.

문: 영적인 삶이란 무엇인가요?

답: 영적인 삶이란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들과는 달리 영적인 것들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문: 진리는 무엇입니까?

답: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기도는 제가 오직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악기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 영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계속해서 영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 분석하고 노력하다 보면 당신의 본성에서 영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연 그대로의 본성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다의 물방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방울은 바다에게 인제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이나 환경을 통해서 이런 잠들어있는 본성을 깨울 수 있고 이것이 영적인 진리로 우리를 안내 합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거나 읽게 될 때 우리 마음 속안의 본성이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제 경우처럼 우리 마음속 안의 본성을 직접 깨워서 진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글들도 모두 마음 속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시고 알리고 노력하세요.

문: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항상 아픔이 따릅니까?

답: 자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때까지 영적인 성장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과의 조화를 쫓는다면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고통과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조화 속으로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이런 고통과 문제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문: 정말 제가 더 이상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느낌도 들지 않는 안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답: 만약 내적인 평화를 찾는다면 더 이상 안락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평화와 안락함이 당신의 한 부분이 되어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당신은 조화 속에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문: 저는 무척 외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당신은 엄격히 말하면 정말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좋은 동반자이신 하나님께로 들어가세요. 영감을 위해서 노래를 듣든지 책을 읽어 보세요. 외로운 사람들을 방문해 보시고 그런 분들과 전화통화를 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나눌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의 외로움도 모두 사라집니다.

문: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해 질 수 있어요?

답: 하나님과 함께하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제 말뜻은 하나님의 규율에 순종한다는 말이지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삽니다.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적인 규율에도 순종합니다. 제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것은 따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건강함과 행복함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문: 어떻게 하면 평범한 저의 집사람과 어머니도 당신이 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답: 우리에게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세요. 육체를 위한 규율만 따르지 말고 인간을 형성시켜 주는 영혼을 위한 규율도 따르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하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지쳐버린 병상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가족들을 돌봐야 한다고 해서 더 어렵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 문제 해결능력도 기를 수 있으니까요. 진정한 사람은 무엇을 받을까 하는 생각 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이런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지요.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 같은 것 말이에요.

문: 채식주의자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채식주의자가 될 것인지 알지요?

답: 저는 한번도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더러운 일"을 대신 해달라고 할 수 없지요. 저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먹을 수 있게 나를 위해서 살아있는 것을 죽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문: 저같이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이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지 말 것을 권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당신이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답: 순례자로써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저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의 견해가 혹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 어린이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데려 하려는 것을 제가 본다면 저는 그 아이를 막을 것입니다—아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그 아이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니깐요. 어느 여자분이 최근에 제게 보내온 편지에 제가 그 여자분이 담배를 피워서 그분 옆에 앉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밤에 그 생각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담배를 끊었다고 적어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문: 저의 남편은 골초 이고 저는 담배냄새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담배를 피울 때 깊은 방에 계시지 마세요. 어떤 종류의 담배는 나무들 태우는 것같이 독이 없는 담배도 있긴 하지만 담배는 대부분이 독성이 있고 누구에게나 좋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 분이 담배를 끊으시면 두분 모두에게 좋으시지만 만약 남편 분이 담배를 계속 피우시겠다고 하시면 당신이 함께 계신 곳에서는 담배를 절대로 피우면 안 되겠지요. 밖에서 담배를 피 달라고 권해 보시던지 집 안이나 집 밖에 남편 분이 따로 나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너무 다투지는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해결책을 찾는 곳에 쓰는 것이 더 좋을 테니까요.

문: 담배를 피고 싶거나 술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들 어떻게 막을 수 있지요?

답: 저라면 술이나 담배도 아주 오래 전에 카페인에 중독되어있었던 습관을 끊었던 것처럼 아예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예 끊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어떤 여자분은 커피대신 민트 잎을 넣은 차를 마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께서는 칵테일 대신 과일주스를 드신다고 했는데 친구들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어느 남자분은 담배를 항상 넣고 피웠던 곳에 담배대신 방풍 류와 건포도를 넣고 드신다고 했어요. 이런 방법들을 적용시켜보시면 어떤까 생각이 듭니다.

문: 우리는 옆으로 손을 뻗어야 하나요 아니면 위로 손을 뻗어야 하나요?

답: 우리는 항상 빛을 향해 위로 손을 뻗어야 합니다—그러면서 옆으로 손을 뻗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길을 걸으면 안내를 위해 위를 보고 나누기 위해 옆을 보지요.

문: 왜 하나님은 존재하나요?

답: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삶의 원동력이지요. 하나님은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세상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답: 하나님의 규율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일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바칠 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답: 예수님은 이 지구를 함께 걸으신 홀몸하신 영적인 선생님이십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 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문: 기독교인이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답: 저는 기독교인인적도 없고 기독교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학자도 훈련사도 아닌 그냥 내적인 길로 가는 진실한 종교인입니다. 제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각자 자신의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세주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영적으로 더 진화된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답: 예수님은 그 시대보다 훨씬 앞선 진화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인생도 조정하셨듯이 당신의 인생도 조정하실 수 있는 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해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실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문: 당신은 예수의 재림을 믿습니까?

답: 우리의 인생이 계속된다고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문: “이 세상에서가 아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가르치고 계셨습니다—하나님 중심의, 내세하시는 그리스도.

문: 인생에서의 우선이 무엇입니까?

답: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찾아라 그리고 그의 을바르심을.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해 지리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건강, 행복, 내적인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의식까지. 인생에서 두려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 어떤 근심도 사라지게 되지요.

문: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면 왜 당신은 유명하지 않지요?

답: 내적인 평화를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하지 않아요.

문: 당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화신입니까?

답: 저는 평화를 위한 순례자입니다. 저는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걸읍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저는 기쁘게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영적인 삶을 위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문: 구세주라는 개념은 미숙한 생각입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이었습니까? 당신은 구세주입니까?



문: 미숙한 사람들은 그 안의 하나님을 찾기 보다는 구세주를 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아주 훌륭한 영적인 선생님이셨지요. 저도 하나님의 규율 안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모두에게는 신의 성품이 제각기 다른 이름으로 내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성품이 각 사람들에게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분 짓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 왜 인간은 교리를 만들었나요?

답: 교리는 꼭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교리는 미성숙함, 고난과 두려움, 무관심 등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리는 가끔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문: 왜 인간은 교리적인 종교를 믿나요?

답: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성숙한 종교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성숙해 저서 자신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종교를 떠나게 됩니다.

문: 교리를 설명해줄 수 있으세요?

답: 믿음에서 핵심적인 영적인 진리를 때 보세요, 그때 남는 것이 교리입니다.

문: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답: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위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작은 목소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문: 과학과 종교는 서로 모순됩니까?

답: 과학은 실용주의적이고 종교는 신의 안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모두 같은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에 다다른 데에는 과학이 훨씬 더 오래 걸리지요.

문: 영적인 발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 영적인 발전은 신의 뜻 안에서 조화롭게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하나님의 규율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말이예요.

문: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나요?

답: 인간에게 무신론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들이 깨닫게 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 더욱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적으로는 창조사이시고 모든 것을 변하게 하는 동기이고 결과적으로 진리, 감정적으로는 사랑, 친절, 아름다움, 신; 영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엮어주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 이 세상은 언제 창조되었고 또 언제 종말 됩니까?

답: 이 세상이 언제 창조 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 정확한 날은 모릅니다. 물론 정확한 종말의 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뜻과 필요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 되었고 더 이상 그 필요가 없어지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우리가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냥 접테기가 아닌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화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의 작은 목적들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규율과 법칙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문: 당신은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답: 천당과 지옥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당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지옥은 그렇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생에서 당신은 들음의 하나 혹은 둘 다의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은 없습니다.

문: 전생과 후생에 관한 경험이 있습니까?

답: 지구에서의 인생을 하루의 경험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이 인생의 전에도 날들이 있었고 미래에도 많은 날들이 펼쳐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어제의 일이 내일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 적용시키면 전의 경험들이 이 삶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지금의 삶이 미래의 경험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수평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생에서의 삶이 더 이상 연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생과 후생으로 연속되는 삶이 오히려 더 부적합하고 무질서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답: 모든 두려움은 앞으로의 일을 알지 못할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죽으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산에서 눈보라를 만나 죽을 뻔 했을 때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인 죽음을 막상 겪었을 때 저는 죽음이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죽음을 저의 인생에서의 마지막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것으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문: 죽음을 만약 두려워한다면 그 뜻은 자아의식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까?

답: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게보다는 육체에게 더욱 치중을 두고 있으며 영혼보다는 육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자아의식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문: 어떻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요?

답: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문: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항의를 할까요?

문: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갖는 이런 생활이 저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까. 저는 단지 정말 필요한 것도 갖지 못하는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제가 필요한 이상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제 주위를 보면서 빛이 생기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구입하느라 생기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입하느라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사람들은 원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자아만족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무엇을 물건을 사는 것으로 대신 충족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영적으로 불안정한 것을 물질적으로 충족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용없는 일입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바라보아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무슨 목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 물질적인 것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답: 물질적인 것을 그냥 제자리에 두고 그 물질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인류라는 몸 안에 작은 세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는 부족하고 누구에게는 많고 하지 않고 모두에게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 파괴, 전멸에 대한 예상은?

답: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좋은 일들을 생각하세요. 보고 싶은 그런 것들만을 생각하세요. 생각으로 내적인 상태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주위의 환경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은 선택과 결정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의 어두움은 새벽이 오기 위함임을 기억하세요.

문: 폭력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손자가 태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왜 당신의 손자가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한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규율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과 규율을 어기는 사람들은 모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암흑의 시간도 하나님의 규율을 벗어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거치는 단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릇된 자들은 실패할 것이며 옳은 자들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는 말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단지 언제 그날이 올지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문: 아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전력부족

답: 태양열, 풍 열, 수력 등을 포함한 자연적인 에너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태양열 기구 2 개와 풍차 2 개로 에너지를 모두 충당하는 복장에서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 테러리즘

답: 테러리스트들은 매우 미숙하며 대개 악은 더 센 악으로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훈련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원상대로 회복하는 프로그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 장래, 청소년 문제

답: 아이들을 위한 좋은 환경의 놀이 공간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 특별활동들이 있다면 청소년 범죄는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 부채

답: 자신에게 맞는 일이 아닌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짐증할 수 없고 멍 해지는 부채증이 생깁니다. 보기에 좋은 일이나 급여가 높은 일 등의 조건 보다는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 질투

답: 질투는 미숙한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인식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 증오와 인종차별

답: 증오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가 아닌 증오하는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차별하는 사람은 다치게 됩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화로 인해 다치게 되던지 영적으로 성장하며 강해지던지 그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좌절

답: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모든 문제는 해결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인내합니다.

#### 고통

답: 우리의 인생에서 고통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목적이 있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교훈을 찾아봐야 합니다.

문: 당신은 자유주의적입니까? 아니면 보수적입니까?

답: 좋은 것을 보관하고 유지하고자 할 때는 보수적이며 바뀌어야 할 것이 있을 때에는 자유주의적 입니다.

문: 정치적, 사회적 철학은 무엇입니까?

답: 정치적, 사회적으로 모두 신의 뜻과 섭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자본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실업자를 만들어내는 경제 체제라면 자본주의는 더 발전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보통 경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일은 화합입니다.

문: 민주주의가 올바른 체제입니까?

답: 만약 민주주의의 참 의미대로 국민의 의사가 담긴, 국민이 움직이는 정치라면 올바른 체제이지요. 저는 개인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를 믿습니다. 지금은 이런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신의 뜻과도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문: 죄악과 우익이 무엇입니까?

답: 현재 진행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사회적 변화를 불러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죄악'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익'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전쟁 철학과 같은 '결과가 의미를 보여준다'는 잘못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담는 의미나 해석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결과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철학은 모든 종교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문: 공산주의가 세계를 잠악하고 모든 종교를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물론 종교에는 끝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게 될 테니까요).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체제입니다. 물론 공산주의가 종교의 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작은 사회에서는 실행되어 왔지만 큰 사회에서는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큰 사회에서 실행되었다 해도 개인의 종교적 자유 등에 제계를 받고 정부로부터 억압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느꼈지요. 이렇게 되면 독재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서로 섞이고 화합하지 못할 때 조화는 깨어지는 것이고 조화가 깨어질 때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올바른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세계에 가르쳐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 공산주의자들이 핵전쟁을 시작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아닙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핵전쟁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핵 무기를 갖고 있는 한 실수나 착오로 핵 전쟁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카라테 (태권도) 같은 자기 방어기술크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저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떤 종류의 방어기술이던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숙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이런 방어기술크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 '무저항'은 평화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침략'은 공격적으로 들립니까?

답: 무저항적인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폭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인 사람은 가르침 때문에 폭력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침략적인 사람, 공격적인 사람도 마음 속으로는 조화 속에서 살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행동이 다름과 투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문: 88%의 범죄가 남자에 의해 저어졌고 남자는 전갱터 등에 나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물론 제외도 있겠지만 필상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성숙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가 영적으로 더 발달되었습니까?

답: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남자가 사람의 법칙 안에서 살기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여자는 사람의 법칙 안에서 살기 쉽고 어떤 때에는 약한 여자의 모습을 바라기도 합니다. 남자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잠재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공격적이고 강한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와 같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남자가 전갱터에 나가 싸우는 것은 관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여자들이 전갱터에 나가 싸우기도 합니다.

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로써 어떻게 벌 주나요?

답: 상을 주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상을 주지 않으면 되고요.

문: 미성숙함이 무엇이지요?

답: 보통 사람들이 미성숙함을 말할 때는 자신들의 관습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함이란 신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 꿈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답: 대부분의 꿈은 실리적으로 떠도는 상태에서 표현되거나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인 스트레스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꿈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또렷하게 기억나는 앞으로의 미래를 예언해 주는 꿈이 있기도 합니다.

문: 일 하십니까 (돈 버시는지)?

답: 일은 합니다만 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저는 제게 떠오르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며 사람들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 제가 달라고 묻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저에게 주고 싶은 것들을 주지요. 그들은 나누는 것을 통해 은혜 받고 저는 저의 나눔을 통해 은혜를 받지요.

문: 왜 취직하지 않지요?

답: 제가 취직하지 않았다고요? 저는 주 7일 하루에 16시간씩 일 합니다. 아마도 왜 돈을 벌지 않는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지는 것만 갖고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모든 손길 위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일을 사랑합니다. 제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편지에 답장하고 서신을 통해 많은 상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 후에 돈을 보내주기도 합니다만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교육적, 영적 투어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투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라스카에 갔을 때가 생각 나는군요. 함께 갔다 온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했고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모두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알라스카에 갔던 사람들 중에 지금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 왜 돈을 받지 않지요?

답: 저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 말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은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파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치게 됩니다. 우편으로 오는 돈을 받기도 합니다 (상업적인 돈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돈을 제 개인을 위해 쓰지 않고 우편물을 보내는데, 아니면 인쇄를 하는데 씁니다. 영적인 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만약 준비 되어 있다면 진리는 저절로 주어질 것입니다.

문: '영적인 진리는 살수 없다'는 말에 숨은 이론이 있는지요?

답: 영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진리를 팔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사람도 가질 수 없지요. 영적인 진리는 준비되어 있다면 저절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낸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인류라고 하는 몸 안의 세포들이기 때문입니다.

문: 당신은 용기를 잃거나, 외로움이나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답: 아니요. 저는 용기를 잃거나 외롭거나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생활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알기에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내적 평화를 찾게 되면 이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얻게 되기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문: 언제 이런 진리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찾는 그런 것을 찾으셨는데 숨기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지요.

답: 저는 한번도 자료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빛을 위해서 저는 그 빛이 나오는 곳으로 갑니다—빛이 반사되는 곳이 아니라, 그리고 가능한 많은 빛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빛이 나오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설명하고 토론할 수 있게 완전한 이해 속에서 오는 빛이기 때문이지요.

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답: 순례를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의 나이에 대해 물어왔어요. 그러면 저는 제 나이를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해요. 물론 제 생일은 알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의 옛 이름을 맞춰보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특이한 이름은 아멜리아 일하트 (Amerlia Earhart) 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나이를 잊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지 몰라요. 생일을 세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늙어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나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가장 되고 싶은 나이를 생각하고 그 나이 후부터는 나이 세는 것을 멈추라고.

저는 저의 서명도 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상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 때 자유롭지 못합니다. 서명을 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로 서명을 하면 사람들이 옛날의 저에 대해 생각하느라 아까운 에너지를 쏟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는 제 생일이 알려진다면 지금 받고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 만으로도 벽찬데 생일카드까지 받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2주 가량을 이런 카드에 대한 답장을 쓰는데 보내게 될 것입니다.

문: 진짜 이름이 무엇입니까?

답: 제게는 평화 순례자 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제 배경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 하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공부도 많이 못했고 특별한 재능도 없습니다.

문: 자녀가 있습니까?

답: 저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고 가족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형성하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을 보고 남자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를 싫어해서 결혼하지 않은 게 아니니까요. 저는 남자들과도 잘 지냅니다.

문: 어떻게 그렇게 넘치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나요?

답: 내적 평화를 찾으면 넘치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으면 쉽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문: 학생들과 세대차이를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답: 저는 그것을 세대차이 보다는 가치차이라고 봅니다. 학생들은 전쟁과 편견, 물질주의와 위선과 같은 잘못된 사회 가치에 반항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잘못된 가치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문: 점성술을 믿으십니까?

답: 점성술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인생을 조정하는 해설 법입니다. 점성술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 깊게 침투하게 될 것이고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지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예를 들어 건강문제에 직면 했다면 “내가 내 몸을 심하게 다쳤었나?” 생각해 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 했다면 “내가 너무 내 욕심만 채우며 내 뜻대로만 살려고 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정신적인 문제에 직면 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랑했었나?” 생각해 봅니다. 현재에 하는 일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아름답고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현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한 말에 의해 잘못된 반응을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만약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의 잘못도 동정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화롭지 못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사랑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을 사랑으로 대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든 잘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아주 나쁜 일을 당신에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동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저는 제가 옳지 않은 반응을 보냈어도 제 자신을 모질게 화로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문: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답: 내적 평화로 가는 길이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까지 가서 뒤 돌아보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가 내적 평화를 이런 큰 은혜를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었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문: 충동적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이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만약 자신이 충동적으로 음식을 먹고 있다거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몸에 좋은 음식으로 바꾸어 놓으면 됩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찾다가도 몸에 좋은 음식밖에 없으면 먹게 되니까요. 음식을 먹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게 인생에서 음식 말고 다른 뜻 깊은 일들을 찾아서 해 보세요.

문: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극대화할 수 있지요?

답: 평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야외극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평화의 메시지를 알리는데 예술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한된 사람들만이 강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면서도 흥미롭게 만들어진 팸플릿을 읽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평화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연극이나 인형극이 생긴다면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 영적으로 말해 우리는 나쁜 생각과 느낌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만약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문: 은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은퇴가 모든 활동을 그만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남을 돕는 일에 쓰는 등 활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퇴는 인생에서 아주 좋은 시간으로 남아야 합니다.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

문: 만약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만약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많은 기회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채워지기가 쉽습니다. 만약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좋은 것들로만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 속은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자신에게 ‘내가 합리적이지 않은 적이 있었나’ 물어봅니다. 만약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만약 있다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답: 종교적인 태도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 줍니다. 만약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 해 줄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육체는 인계든지 없이질 수 있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육체를 조정하는 우리는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문: 어두운 곳에 혼자 있지 못하는 것과 같은 작은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답: 저는 항상 어두움은 친절han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편히 잠을 자고 설 수 있게 해 주니까요. 어두워지는 것을 관찰해 보라고 권하고 싶군요. 묶고 아름답게 해가 지는 모습과 밤 하늘에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첫 별. 어두움에 대해서 알아가면 좋겠네요—두려움은 보통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문: 정신과 의사들은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아무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심리를 잘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답: 어린 시절 우리는 배운 것만큼 두려워합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이나 몸, 감정은 조정할 수 없어요. 신만이 하실 수 있지요. 만약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활한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두려움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 당신은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문: 인생을 더욱 뜻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제가 순례를 시작하기 15년 전 저는 정말 저의 인생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었고 그 후로는 받기 위한 삶이 아닌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날 하나님의 자식으로써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했습니다. 항상 주위에서 내가 할 일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루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물론 따뜻한 말과 밝은 미소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기도를 했어요—긍정적인 기도는 좋은 행동과 결과를 줍니다. 저의 인생은 늘 행복과 은총이 가득하였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문: 어떻게 참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답: 저는 모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부터 참 인생을 찾게 되었습니다. 강요한다고 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고 그냥 도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그저 밝은 미소나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로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문: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개선시킬 수 있나요?

답: 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보세요. 내 안의 신의 본성—내적인 빛—을 찾으면 답을 모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을 진실로, 증오를 사랑으로 이기려고 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좋은 생활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사회에서 늘 활발히 활동하는 것 (2)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좋은 식사 습관, 운동 등 건전한 생활 습관 갖기 (3) 좋은 글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생에 활기를 주기 (4) 기회가 닿는 대로 주위 사람들 돕기—주는 대로 받게 될 것임.

문: 많은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은데 저 하나만 인생을 개선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 지나요?

답: 인류는 사람들이 개선될 때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개선할 때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개선하고자 하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단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몇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문: 저 같은 사람이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단체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저의 인생을 바치고 싶다고 하였을 때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답했어요,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손 봐야 할 작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치 있는 작은 일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 순례를 시작하였을 때 누군가 제게 너무나 큰 것을 요구하는 것 같더니, “하늘의 달을 따 달라고 하지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바란다면 그 어떤 바람도 모두 이루어 질 거예요.”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현재를 사세요. 지금 필요한 일들을 하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선행을 하세요. 그러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부록 IV:

## 시와 기도들과 노래들

아래 시들은 순례자가 순례를 시작한 후 얼마 안되어 쓴 시들이며 *우리시대의 시들*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글들이다. 그녀가 말하는 “*평화순례자의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라는 글은 가끔씩 발간되는 *평화순례(Peace Pilgrim)* 신문과 *내적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책자에서도 종종 소개되었다. 순례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것을 즐겼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힘차고 기쁜 “사랑의 분수”라는 노래를 부르며 모임을 갖기도 했다.

### 그리스도의 교회

그가 말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만일 이 기대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서 제일이라 하여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오르간은 가장 좋고  
우리들의 성가대의 소리는 언제나 고르며  
우리들의 색 유리는 값을 매길 수 없으며  
우리들의 설교 단은 본 것 중에 최고이다.

하지만 부자들만 그곳에서 환영을 받았으며  
남을 헐뜯는 많은 소문을 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았던 설교 단에서  
목사님은 전쟁을 영광스럽게 이야기했다.

“당신이 교회에서 바라는 게 더 있어요?”  
그가 내게 자신 만만하게 물었다.

“딱 한가지요” 내가 대답했다.  
“기독교적인 정신사상!”

## 인간 없는 세상

졸졸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이 내 앞에 있다.  
내 뒤에는 나무가 가득한 평화로운 산이 우뚝 솟아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데,” 내가 말했다.  
“인간이 없었을 때는 어땠을까?”  
“나는 그냥 흐르고 있었어,” 시냇물이 말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서 있었어,” 나무가 말했다.  
“인간은 자멸적인 것 같아,” 내가 말했다.  
“몇 만 개의 악마 같은 것들을 그 전의 것보다 더 악하게 만들어 놓고,  
만일 인간이 자기 전멸에 성공한다면 그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도  
인간이 없이 돌아갈까?”  
“난 계속해서 졸졸 흐르고 있을걸,” 시냇물이 우쭐거렸다.  
“난 계속 가만히 서 있을 텐데 뭘,” 산이 속삭였다.

## 전쟁의 열광

당신의 적을 친구처럼 보이게 하고 당신을 상대방에게 친구로 보이게 하는 그  
안쓰러운 눈속임, 전쟁의 열광.  
똑같은 악한 행동들도 당신이 하면 합리적으로 만들며 반칙하게 하는 그 죄들,  
전쟁의 열광.  
들린 것을 바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증오가 좋게 보이며 살인이 깨끗하게 보이도록  
흔들어 놓는 그 무서운 미워, 전쟁의 열광.  
병을 고칠 길은 없고 또 길이 있다 하되 몸쓸 병만 그 길을 따라 피질 뿐,  
그 잔인한 병들 또한 전쟁의 열광이라.

## 신병

옛날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야만인 이었다.  
그들은 폭우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제물로 쓰여질 사람, 한, 두 명을 골라 죽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문명화 되었고 기독교인들이 되었다.  
그들은 사단의 우상, 전쟁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백만, 이백만의 사람들을 골라 죽였다.

## 전쟁

강제로 보내진 상처투성인 전쟁터에서  
나의 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나의 칼로 그를 찔렀다.

내가 그의 몸에서 칼을 뺄 때 그의 피가 쏟아져 나왔다.  
갑작스레 내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 찼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말했다.

그 사람도 나처럼 마르고 쪼그라들고 겁에 질려 있었다.  
사람들이 내게 말했던 그런 악한 적이 아니었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 나를 보냈소” 그가 힘없이 말했다.

“차라지 나를 먼저 죽이지 그랬소,”  
“사실 난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소”  
내가 말했다.  
“나도 그렇소,” 마지막 숨을 내 쉬며 그가 말했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었다.

## 우승자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파괴 가운데에서도  
자연은 조용히 흐르고 있다.  
죽어가고 있는 날카로운 소리와 번개 같은 총소리 가운데에서도  
겨울은 또 왔다가 간다.

부서진 총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나오는 파란 잔디가 보이고;  
찌그러진 해골의 눈 사이로  
작은 미나리아재비가 자라난다.

## 양심적인 대항자에게

천 구백 칠십 이년,  
창조자가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증오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발견하였다.  
오직 몇몇만이 진실된 사람이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피 흘리는 사람들을 보았다.  
나는 창조자가 속삭이는 말을 들었다,  
“내가 허공에 달하였구나!”

그러나 그는 용감한 한 남자를 보게 되었다.  
늘 혼자이고, 경멸과 증오에 가득한 한 남자를.  
그의 집은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는 남을 싫어하고 죽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살았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었다.  
나는 창조자가 속삭이는 말을 들었다,  
“내가 네 안에서 살리라!”

### 욕심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두 남자가 말다툼을 했다.  
한 남자가 말했다, “이 땅은 내꺼야!”  
다른 한 쪽에서 남자가 말했다, “이 땅은 내꺼야!”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마치 두 마리의 짐승처럼 싸우고 또 싸웠다.  
그리고 피를 흘렸다.  
다른 한쪽이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때까지  
그리고 다른 한쪽이 죽을 때 까지 싸웠다.

그런 후, 장애인이 된 남자는 피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고,  
후회에 잠겨 울었다.  
“우리 둘 모두 함께 나누어 갖고 남을 정도로 충분히 있었는데,  
이렇게 욕심 많고 어리석은 바보가 또 있을까!”

### 당신의 미래

이 세상에서는 주는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만큼 당신의 죄도 용서됩니다.  
당신의 길을 가며,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평화순례자의 더할 나위 없는 행복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그보다 더 좋은 상을 받게 될 은총 받은 사람이다.

좋은 말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보다 더 깊은 진실을 알게 될 은총 받은 사람이다.

결과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그보다 더 큰 보답을 받을 은총 받은 사람이다.

남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그보다 더 진실된 선에 다다를 수 있는 은총 받은 사람이다.

잘못을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현실을 분별하는 사람은 진실되고 쓰러지지 않을 은총 받은 사람이다.

죽음을 세상에서의 한계라 생각하지 않고 변화라고 보는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 거룩한 삶을 다시 살게 될 은총 받은 사람이다.

자신 앞에 놓여있던 고난을 믿음과 용기로 이겨 낸 사람은 또 다시 두 번째의 은혜를 받을 은총 받은 사람이다.

내적 평화를 찾기 위해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진실된 영적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길을 반드시 찾을 은총 받은 사람이다.

하늘 문을 힘으로 부수고 가려 하지 않고 겸손하고 침착하게 다가서는 사람은 그 문을 바로 통과하게 될 은총 받은 사람이다.

알로하에이!

(잘 알려진 하와이 노래로 1980년 평화순례자가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일행들에게 가르쳐 준 노래이다.)

물방울이 반짝이는 마법의 땅이 보이시나요  
남쪽 바닷가의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시나요  
향기가 가득한 꽃 들판을 걸으면서,  
하와이언 음악의 멜로디를 들어보세요.

알로하 오! 내 사랑을 당신에게,  
천천히 꽃과 햇볕이 가득한 이 땅을 걸어 지나가세요.  
알로하 오!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발걸음을 채워 줍니다.



사랑의 분수

사랑의 분수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을 사랑하니  
내 영혼은 자유롭고,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세상  
아름다운 날,  
이 세상의 희망은  
사람입니다.

전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도

차분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영혼들로 우리를 꾸며 주소서.  
무서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손을 폭탄과 칼로부터 밀게 하여 주시고  
대신 믿음으로 잡아 주소서.  
언제, 어느 땅을 밟게 되더라도  
죽음대신 생명을 주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지혜를 주소서.  
이것이 평화를 위한 첫 바램이오니  
우리들 지켜 주소서.  
아멘.

부록 V:

## 뉴스 속의 평화순례자

평화순례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신문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좋아했다. 방송매체가 사람들에게 그녀의 순례 목적과 메시지를 전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순례자는 인터뷰에 응해서도 질문에 또박또박 답하였다.

뉴스 헤드라인들:

- Peace Pilgrim to Start Hike across U.S. As Antiwar Bid  
(Los Angeles Times, January 4, 1953)
- Peace Pilgrim in Toledo; She's Hiking 5,000 Miles  
Anonymous Woman Plans to Present Pleas to Ike, U.N.  
(Toledo Blade, September 17, 1953)
- Peace Pilgrim Stops in Sedalia on 10,000 Mile Hike to Urge World Disarmament  
(The Sedalia, Missouri Democrat, November 7, 1955)
- Peace Pilgrim Walks For Peaceful World  
(The Clarion-Ledger, Jackson, Miss., January 19, 1956)
- Pilgrim's Progress Brings Her to Kentucky  
(The Courier-Journal, Louisville, February 27, 1956)
- She Walks to Alert U.S. to Peace Need  
(Bloomington, Indiana, Daily Herald-Telephone, March 8, 1956)
- Woman Walks It, Talks It: Really Has Peace Movement Afoot  
(The Indianapolis Star, March 12, 1956)
- With Peace Her Mission, Miles Add Up for Pilgrim  
(Northern Arizona University Student Newspaper, Flagstaff,  
October 4, 1969)
- Peace Pilgrim Walks 25,000 Miles for World Peace  
(St. Louis Post-Dispatch, April 25, 1971)
- Little Old Lady in Tennies: Peace Pilgrim Marches On... And On...  
(Los Angeles Times, December 3, 1973)
- 21 Years of Wandering: Princess of Peace Walks for Mankind  
(Pasadena, Calif., Star-News, December 16, 1973)

- Energetic Pace Covers 25,000 Miles:  
Woman on Life-Long Walking Pilgrimage for Peace  
(Pomona, Calif., Progress-Bulletin, February 2, 1974)
- Peace Pilgrim's Guardian Angel Works Overtime  
(Norfolk, Va., Star-Ledger, April 20, 1977)
- She Travels Light—a map, her message, a comb, a folding toothbrush and a  
ballpoint pen: Modern-Day Pilgrim of Love and Peace  
(South Jersey Courier Post, Cherry Hill, N.J., October 11, 1977)
- Peace Pilgrim is Still Walking, But She's Not Counting Miles Now  
(Upper Suncoast News, Florida, December 7, 1977)
- Pilgrim Set for Walk Down Florida's East Coast  
(St. Petersburg Times, January 5, 1978)
- Peace Pilgrim—A Quarter Century Walk For Peace  
(Whittier, Calif., Daily News, December 30, 1978)
- Pilgrim Affirms: Maturity Leads to Peace  
(Colorado Springs Gazette Telegraph, April 28, 1979)
- An Ageless Pilgrim Pursues Age-Old Mission  
(The Milwaukee Journal, June 22, 1981)
- She Still Walks the Land Furthering Peace Cause  
(Valparaiso, Ind., Post Tribune, July 3, 1981)
- Peace Pilgrim Brings Message of Peace to Knox  
(Starke County Leader, Indiana, July 7, 1981)

1981년 7월 6일 평화순례자와의 인터뷰

(인디애나주의 나스에서 그녀가 세상을 뜨기 하루 전날 WKVI 라디오에서 매니저인 테드 헤이스(Ted Hayes)와 했던 인터뷰 내용이다.)

TH: 평화순례자님 그 동안 평화를 위해 하신 순례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지요. 어떻게 시작 된 건가요?

PP: 1953년 1월 1일 캘리포니아의 로스엔젤레스에서 저의 순례는 시작되었지요. 지그재그로 5,000 마일을 걷는 것을 시작으로 그 후에도 계속해서 걸어서 순례를 했어요. 이번이 제가 미국을 횡단한지 일곱 번째가 되는 순례지요. 그 동안 미국의 오십 개 주와 캐나다의 열 개의 지방, 멕시코를 돌았어요. 이것은 그저 한 사람이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에 불과해요.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도 평화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기 위해 걸지요.

TH: 나스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PP: 저의 오랜 친구 길프루드 월드가 나스로 초청해 주었어요. 그 친구를 전에는 다른 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사실 나스에는 이번이 처음이지요. 물론 이렇게 초청을 받고 옮겨 다니는 일은 제게는 흔하 있는 일이지요. 평화를 위한 순례를 위해 여러 곳을 다니니까요. 저는 돈도 없고 돈을 누구에게서 받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단체에 속해있지도 않아서 제가 특별한 도움을 받는 그런 단체도 없고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입고 있는 이 옷과 그저 필요한 것 조금뿐이지요. 쉴 곳이 생길 때까지 걷고, 음식이 생길 때까지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제게 주어지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음식과 쉴 곳을 달라고 묻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도 자신 있게 말하지만 사람은 모두 선합니다. 그 선함이 얼마나 깊게 파묻혀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사람은 모두 착한 마음을 갖고 있지요. 옛날에는 초청도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한번도 본적 없는 사람들이 제게 잠자리를 제공해 준 적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 세 배 끼를 굶어야 한 적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초청이 이렇게 미리 이루어 지지요. 물론 나스에 오게 된 것도 미리 잡혀진 초청이었지요.

TH: 이름은 쪽 평화 순례자였나요, 아니면 어린 소녀 때부터의 이름인가요?

PP: 아, 평화 순례자는 저의 옛 이름이 아니에요. 하지만 옛 이름으로 편지를 쓰면 제가 받지 못할 거예요. 지금은 평화 순례자로 통하지요. 한 10년에서 12년 전부터 제 법적인 이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1953년도에 첫 순례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써온 이름이니까요.

처음 제가 순례를 시작했을 때보다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한가지는 저의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 악은 선으로, 거짓은 진실로, 증오는 사랑으로만이 이길 수 있다"는 저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지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 이 메시지에요. 아직도 우리는 이 말대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이에요. 더 많은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빛을 연습으로 뚫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TH: 평화순례자님, 어떤 사람들은 당신같이 이런 일을 할 염두조차 내지 않는 사람 있고 또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의 장벽을 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PP: 저에 대해 지금 막 듣기 시작한 사람 중에는 저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저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대부분의 개혁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었지요. 그러나 저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인간에게서 좋은 면들을 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잡기 마련입니다. 이세상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미소를 보내면 상대방은 다시 미소를 보냅니다. 저는 미소 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미소를 지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시 미소를 지어 줍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물어보지 않아도 다 주어줍니다.

TH: 돈 한푼 없이 횡단을 하고 계시는데 그저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걷고 계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항상 도와주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순례를 하고 계신데요. 혹시 어떤 사람에게 다가갈지, 누구에게 미소를 지을지,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모두 다 알고 계신 건 아닌가요?

PP: 전 누구에게나 미소를 지어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접근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지 앞에는 “평화 순례자” 뒤에는 “평화를 위한 25,000 마일의 도보”라고 써있는 조끼를 입고 순례를 할 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걸어 오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조끼는 친절하게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주지요. 그리고 제게 오는 모든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평화에 관심이 있거나 그저 좋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지요. 이제는 평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어요. 제가 순례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전쟁을 당연히 처리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지금은 전쟁 대신 다른 묘안을 생각하고는 하지요. 처음 순례를 시작했을 때에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적인 발전에도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적인 발전에 많은 관심이 생겼지요. 그리고 물론 우리 각자에게서 평화를 찾는 것이 이 세계가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저의 메시지에도 지금은 많은 관심을 보여주세요.

TH: 순례자님,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은 우리와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의 조그마한 노력이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PP: 성경에는 확실하게 “전쟁과 전쟁에 관한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몇 세기의 시간 중에서 가끔씩 생기는 일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는 그 예언을 더 바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또 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창을 들지 않을 것이며 전쟁을 더 이상 배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예언이 이루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되어 온다고 생각합니다.

한 여성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순례자님처럼 저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여자분에게 “그렇다면 평화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는 조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고 되물었어요. 그 여자분은 “맞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일입니다. 단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노력이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할 수 있는데 까지 저는 노력을 다 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 결과는 제 생애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 질 것입니다.

TH: 순례자님, 여자분에게 나이를 묻는다는 것이 실례인지는 잘 알지만 오늘은 감히 제가 여쭙어보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PP: 저는 모른다는 말밖에 대답할 수 없겠네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 창조합니다. 나이도 우리가 만드는 것 중 하나구요. 순례를 시작한 1953년 1월 1일이라고 해 두지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네요. 순례를 시작한 이후부터 저는 저 자신을 나이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젊었을 때의 일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젊었을 때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못 느끼겠어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도 저는 괜찮아요.

TH: 평화 순례자님이 오늘 저의 손님이 되어 주셨는데요, 순례자님의 책자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평화 순례자라는 글은 앞에, 평화를 위한 25,000 마일의 도보라는 글은 등뒤에 적혀 있다.” 그리고 순례자는 그 거리를 모두 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평화를 위해 걷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평화로 가는 길을 알게 될 그날까지, 잠자리와 음식이 주어지는 한 계속해서 걸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례자는 가장 행복한 여자처럼 보입니다.

PP: 저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기원합니다.

## 평화순례자에게 쓴 편지들

다음 짧은 글들은 순례자가 마지막 길을 걸을 때쯤 받은 편지로 이 편지들은 스왈프모어 대학의 평화순례자 도서관에 보내어져 순례자의 소지품과 함께 보관되어 있다. 필요한 소지품 외에는 가지고 다니지 않았던 순례자였기 때문에 편지를 읽고 답장을 쓴 뒤 대부분의 편지는 버려졌다.

친구: “제가 한 거라고는 지나가는 여자에게 어디에 가는 길인지는 몰라도 내 차를 같이 타고 가겠느냐고 물은 것 밖에 없는데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저의 삶은 한달 전, 일주일 전, 어제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대화의 새로운 의미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친구: “제가 순례자의 편지를 열어 보았을 때 저의 영혼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저의 부족한 부분이 조금 더 나은 영혼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당신의 힘있는 말씀이 저를 목욕 시키듯이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순례자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대학 교수: “당신이 알고 싶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말해드릴게요. 제가 내일 학생들에게 주는 철학 201 기말 고사에는 당신의 말씀과 순례에 관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해답자: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말씀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최고의 연설자이세요. 그리고 또 러셀 콘웰박사의 유명한 ‘다이아몬드 에이키들’이라는 연설도 들어봤는데요, 당신의 연설은 콘웰이 천재가 되거나 브라이언의 노력이 아니면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그런 연설들이에요.”

친구: “보내주신 책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두가 너무 좋은 말들이더군요. 제 앞의 무언가를 울려 진전한 소리를 내는 것 같았어요. 당신의 회답은 저에게는 마치 저의 기도의 응답 같았어요. 제가 심적으로 가장 힘들 때 찾아와서 저의 이수선한 마음을 모두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텍사스의 목사님: “당신의 *내적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동부의 목사님들에게도 보내드렸습니다. 모두들 당신을 자기들의 교회로 초청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당신을 알게 된 것이 저희 교회에서 생긴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였다고 말했지요. 진심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축복 받으신 분입니다.”

친구 (바른 라우지에서): “당신의 건전하고 인간적인 메시지가 어디에서든지 당신의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적인 지배에 대하여 더욱 불안해 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는 이러한 계획을 지지해서는 안됩니다. 정의와 평화로 죽음과 파멸을 없앨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캘리포니아에서 수녀: “당신은 오늘날 예수님의 평화를 증거하는 증거인 이십니다.”

일리노이즈에서 대학생: “당신을 몇 달 전에 뵈 이후로 당신의 메시지가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말하는 인생의 충고를 받아들이며 똑같이 따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갖고 있던 성공으로 가는 길을 아무 소지품조차 없는 조그마한 등치의 머리가 하얀 당신에게서 찾았습니다.”

목사님: “명안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삶과 조화, 전도를 실천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대학생: “당신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저 자신을 다시 들여다 보고 평가해보게 되었고 그 동안 제 인생에서 우선이 되었던 것들,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이익을 위하여 또 무엇인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남들에게는 무관심 했던 또 다른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남을 많이 돕고 싶은 제 속 마음도 찾았습니다. 벌어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인생에서 많은 소중한 것들을 그 동안 놓치고 살아온 것 같고 그저 저를 감잡힌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줄 누군가 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강의실에서 주신 너무나도 좋은 메시지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저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저처럼 그저 누군가가 모두 알아서 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당신처럼 여러 곳을 다니며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스프링필드에서만 당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믿게 도와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육을 받아 왔으나 그 동안 배우지 못한 소중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신의 평화와 사랑의 약속은 당신의 말이 아닌 얼굴에서 비추어졌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빛이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친구: “당신을 만난 것은 제게 너무나도 뜻 깊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제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 삶에서 저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청취자: “51년 동안 듣고, 읽고, 토론해 보았지만 이번 같은 진실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당신이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어떻게 의적인 문제와 상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오늘날 사람들과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지적하였고 또 그 문제의 해결책을 말하는 당신의 메시지는 마치 확실한 약속 같았습니다.”

## 평화순례자와 함께

이 편지들은 평화순례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보내 온 글이다.

평화순례자가 순례를 시작하기 전 만난 친구:

“평화순례자가 파사디나의 장미 퍼레이드(1월, 1953)에 참가하기 전 한 친구가 신발을 손에 들고 맨발로 바닷가에서 걸어오며 배웅을 해주었어요. 순례자는 반바지와 단순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소개를 받은 후 그분과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분과의 대화가 너무 흥미로워 전 저의 다른 친구 3명에게 전화를 해 그분을 만나보라고 설득했습니다. 저희 모두는 동네 댄스 그룹에서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다음날 아침까지 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평화를 위해 로비를 했던 워싱턴 디씨에서의 생활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국회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국회를 따르는 길이 결국에는 전쟁뿐이라고 느끼게 되었고 그럴수록 더 거리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생각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질문과 생각 속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나는 내 자신이 두렵지 않다. 하지만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느 그룹이 우리 인류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을까? 또한 어느 그룹이 인류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잘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였다더군요.”

“그녀는 워싱턴에 남아서는 이 답을 절대 못 찾을 것을 알고는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일을 그만 두고 혼자 답을 찾아보도록 결심 하었어요. 일년이 넘도록 각 주를 돌아 다니며 등산하며 사람과 나눔을 바탕으로 봉사하는 많은 기관과 단체들을 직접 방문하었어요.”

“나의 모든 연구가 끝나면 앞으로 있을 힘든 날들을 대비해 우리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일에 필요한 가장 필요한 집회를 조지아에 있는 코이노니아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아직은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을 때 우리는 모두 그녀의 가슴 깊숙이 에서 국가간을 화합과 사랑으로 엮어줄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우리의 훌륭한 친구가 적합한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모두를 좋은 길로 안내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3년이 지나 우리가 캘리포니아의 셀벌나디오에 살고 있었을 때 평화 순례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녀는 저의 부탁을 받아들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도 들렀다 갈 것을 약속했어요. 감리교회 목사님이 그녀의 저녁 방문 순서를 맡아 준비해 주셨고 우리 모두 그녀를 맞을 준비에 분주했어요. 우리는 YMCA Creative Living Club 에 예약을 했고 회원의 절반가량이 제 절일 안식일 예수 제림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에 대해 궁금해 했고 그런 때 마다 목사님께서는 그저 ‘원더풀, 원더풀. 이런 분을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순례자가 도착하였고 목사님은 순례 중만 아니었어도 차로 바증을 나가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외각으로 돌아서 도착하였고 모임의 소식을 듣고 여기 저기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약을 해 놓았던 YMCA 회의실을 2번이나 다른 더 큰 곳으로 옮겨야 했었지요.”

“사회자가 순례자를 소개하기 전 저는 순례자에게 방문할 곳이 적힌 스케줄표를 보여주었고 그녀는 주위에 대학교도 있느냐고 물었어요. 얼마 후 그녀는 리버사이드 대학교 (University of California at Riverside)의 저널리즘 학과 교수님과 연락이 되었고 교수는 학생들이 순례자를 인터뷰해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지 않아도 딱딱했던 그녀의 스케줄에 끼어 넣으며 그녀는 인터뷰를 허락했어요.”

평화 순례자가 순례를 시작하기 전에 알았던 친구:

“저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필라델피아 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할 때 순례자를 만났어요. 그녀는 우리의 작은 오피스에서 Scott Nearing 의 활동 소식을 전하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었고 국제 여성의 평화와 자유를 위한 봉사 활동 일도 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조용하며 차분하였지만 일을 할 때만큼은 정말 정확한 여자였어요. 그녀는 일도 빠르게 잘 처리하여서 활동소식지를 전할 때 평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주소를 적고 메일을 붙이는 일도 하룻밤 만에 모두 끝내곤 했어요. 그녀는 일주일에 고작 10불을 받으셨는데 그 돈도 충분하다고 했어요.”

“제 생각에 그녀는 옷도 두벌밖에 갖고 있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 두 옷을 번갈아 가며 입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깨끗하고 단정해 보였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용기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일년에 한번씩 여행을 함께하는 등산 클럽에도 가입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한 40 마일은 족히 걸었던 거 같아요. 대부분의 회원들은 한 30 마일 정도 지점에 가서 포기하거나 완주를 하지 못하였지만 그녀는 그 조그마한 체구에 항상 완주를 하였지요.”

“그녀는 다른 건강 단체에서 일을 하며 한 2년 동안을 서부로 등산을 가기도 했어요. 그녀는 텍사스에 있는 쉐튼이라는 금식만을 이용해 병을 치료하는 곳이 가장 감명 깊었다고 했어요.”

“제가 굳이 그녀를 비판한다면 (비판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현대 사회에서 그것도 모든 것이 잘 발달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세계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좀 무모한 일이 아닌가 생각했지요. 그녀의 메시지를 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하였지만 정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 세계평화가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에 평화순례자와 같이 갔던 친구:

“순례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에게 한 질문이 생각납니다. ‘가끔씩 길을 걸으면서 캄페나 오토바이족들을 보신적 있으시지요?’ 하고 물었고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리온,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그녀의 대답은 “나는 그들을 이해해요” 라는 말로 들렸어요.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리온,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들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말을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흐른 뒤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죠.”

“하와이의 Big Island 라는 공원에서 한 젊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는 나와 순례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할 지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이 공원에 오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그가 알고 있는 특별한 곳을 보여줘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순례자는 괜찮다며 그의 제안을 받아 들였어요. 우리는 그를 따라서 한 시간 좀 넘게 걸었지요.”

“저는 그 젊은 남자가 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어딘가 모르게 술에 취해 있는 듯 보였고, 몸집도 크고, 시끄럽고, 노골적인 표현들이 끊이지 않았고 그의 매너들은 너무 흥분되어서 인지 자기 마음대로였지요. 그의 말들은 욕이 끝없이 쉬어서 나왔으며 그는 행동의 어떤 제안도 받지 않았어요. 전 그런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창피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하와이의 여러 색깔의 꽃들과 화려한 옷을 입은 많은 여행객들과 축제 분위기로 붐빈 관광지역으로 갔을 때에는 난폭한 그와 있다는 것이 너무 싫고 창피했어요. 순례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살 화산의 가장자리에 있는 화산을 관찰할 수 있는 간단에 도착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다음 스케줄을 위해 힐로(Hilo)로 비행기를 타기 위해 돌아가야 했지요. 순례자는 그 젊은 남자에게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제는 돌아가야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우리가 떠난다는 소리에 섭섭함과 실망감을 나타내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갈 곳이 한곳 더 있다면서 우리를 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젊은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순례자가 제게 몇 년 전에 해주었던 말이 생각났어요. ‘나는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지 않는다.’ 저는 제 자신에게서 큰 실망과 비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동안의 순례자와의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저의 이기적인 개인중심의 삶에서 나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발을 옮길 수 있게 되었고 순례자와의 소중한 경험들을 잘 간직하며 가끔씩 제 삶을 돌아보고는 합니다.”

평화 순례자와 국회의원 제넷 랜킨의 친구이자 전쟁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메리 오켈리로 부터 (제넷이 메리에게 전화 해 평화순례자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함):

“드디어 평화 순례자를 초대하여 하루를 보낼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넷은 주위의 아는 사람 몇 명을 더 초대하여 평화 순례자를 만나서 그녀의 순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운 뒤 제넷은 저를 쳐다보며 ‘누구를 초대할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넷이 여태까지 친구도, 이웃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지요.”

“제넷이 국회에 있을 때 많은 대지를 구입하였어요. 그녀의 친구들은 대부분이 조지아에 살고 있었지요. 1941년 제넷이 제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를 탐탁히 여기지 않았고 그녀의 의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그녀는 결국 아주 조그마한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고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쓰리고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며

아무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과 국회의 남자들이 모든 것을 짜멸로 몰고 가는 피의 길로 이끄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지요.”

“저는 제넷에게 우선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초대할 것을 권했고 조지아에서도 모이고 이곳 저곳에서 집이 꼭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 주었지요. 아마 그날 한 50-60명 정도 모였을 거예요.”

“모임이 끝난 뒤 제넷과 평화순례자는 그날 밤 이야기 꽃을 피우며 밤을 보냈지요. 제넷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와 주어서 놀랐고 평화순례자는 제넷이 국회에서 받은 상처가 그녀를 삼켜버리기 전에 제넷이 삶 속에서 이런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감지하게 되었어요. 제넷은 순례자에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순례자는 제넷에게 당신의 이름만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당신의 재선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어요.”

“평화순례자는 제넷이 진지하게 이런 평화의 일에 가담하기 원한다고 말했어요. 대학 캠퍼스에서도 많은 모임과 협회들, 여성모임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제넷도 이런 모임에 가담하기 시작 하였어요.”

“평화순례자는 제넷에게 그녀의 인생의 길을 설명해 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주었어요. 제넷은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였고 그녀가 40대에 포기하고 떠났던 인생의 길을 다시 찾아서 그녀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지요. 제넷은 베트남전쟁 당시 제넷 벤킨회를 결성하는 등 국제적인 협회를 이끄는 등 그녀의 여생을 여성 인권을 위해 일하였습니다.”

수녀님:

“1970 년대에 조넬라 수녀님은 평화 순례자를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었고 그녀와 편편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평화 순례자를 만나기까지는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수녀님은 순례자를 빌라 집으로 초대하였고 따뜻한 환영 식을 가졌어요. 모두들 순례자와 말하고 싶어 했고 수녀님의 기도를 시작으로 평화 순례자와의 대화를 시작 하였어요.”

“3년 뒤 평화순례자가 3박 2일의 일정으로 다시 방문하였어요. 순례자는 공원같이 정리되어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좋아했으며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어요. 순례자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내어 수녀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그녀의 차밍하고 온순하고 따뜻함이 우리 모두의 호감을 샀지요.”

“이느 날 아침에는 평화 순례자가 자신의 물건들을 담고 정리하며 순례자도 따뜻한 목욕을 하였어요. 우리는 순례자에게 마음의 선물로 그녀에게 필요한 새 신발과 옷 등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그녀는 정중히 거절하였어요.”

“하루는 저도 시간이 나고 해서 평화 순례자에게 ‘나도 평화를 위해 순례자가 혼자 다니지 않아도 되게 함께 다니며 순례자와 같은 일을 하고 싶다’ 고 말했어요. 순례자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수녀님은 저를 도울 수 없고 저와 함께 가실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수녀님과 함께 있으면 좋지만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고 이 일은 제게 주어진 일이에요. 저의 평화의 임무가 끝나고 제가 죽어서 이 땅에서 없어지고 나서 평화는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 자체가 평화가 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예언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녀는 순례 중에 고속도로에서 혹은 여러 시에서 있었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녀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 지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TV 토크쇼 호스트:

“베트남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저는 네쉬빌에 있는 WSM에서 TV 토크쇼 호스트를 맡고 있었지요. 그 당시에 저는 성숙함 없는 그저 좋은 이미지 남기기에만 급급한 신입이었어요. 평화 순례자가 네쉬빌쪽을 향해 오고 있다는 편지를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평화 순례자를 저의 TV 프로그램에 모시기로 했지요. 평화 순례자가 TV 스튜디오에 드디어 모습을 나타내셨을 때 저를 비롯하여 방청객, 악단, 카메라맨 할거 없이 웃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히피족 같은 이 할머니는 누구야?’ 하며 말이죠.”

“저는 비꼬는 말투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기분 나쁜 말투는 모두 동원해 순례자를 소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놀리고 특히 시골에서 온 나이 많은 사람들을 놀리는 것들이 프로그램 인기 물이에 큰 작용을 했었지요. 인터뷰를 시작하고 몇 분 동안은 순례자도 저를 놀리셨지요. 아니 저와 논쟁을 하셨다는 표현이 더 맞는 거 같군요. 그녀는 너무 방어적이기도 공격적이기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오! 그 눈과 손..... 그녀는 그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 같았고 무엇을 잡는 듯 한 그녀의 손 동작과 빛나는 파란 눈..... 한 2,3 분이 지났을까? 저는 이미 순례자의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게임을 이미 모두 꿰뚫어보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한지 한 8분 정도 지났을 때 방청객에서의 비판의 소리는 거의 없을 정도로 줄었고 악단에서는 아주 조용했어요.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지난 후에는 어떠한 나쁜 농담이나 야유 없이 인터뷰가 진행 되었지요. 그날 저는 하루 사이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에도 평화 순례자와 많은 인터뷰를 가졌지만 첫 번째 인터뷰만큼 저의 기억 속에 깊게 자리잡은 인터뷰는 없습니다.”